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2016-27

중국 핀테크 산업 성장과 규제완화

서봉교



정책연구 16-27

2016. 12

중국 핀테크 산업 성장과 규제완화

서봉교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중국 칭화대학교 경제경영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의 금융산업과 중국 경제 등이다. LG 경제연구원, 삼성 금융연구원 등에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국의 핀테크 금융혁신과 온라인은행의 특징」(2015), 「중국 일대일로 금융자금조달 모델에 관한 연구」(공저, 2016), 「중국의 위안화 직거래 해외 사례와 특징-시장의 반응과 전략을 중심으로」(공저, 2015), 「중국 민간금융 제도화의 사례와 특징: 소액대출회사, 촌진은행, 민영은행을 중심으로」(공저, 2015), 「중국 신금융상품 위어바오의 성장과 중국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공저, 2014), 「중국 은행별 국제화 전략의 특징과 시사점」(201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공저, 2015), 『일대일로와 금융자본』(공저, 2016), 『원-위안화 직거래 시대의 한-중 금융협력 방안』(공저, 2015), “Causes for changing performance of the business groups in a transition economy”(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공저, 2010) 등이 있다.

중국 핀테크 산업 성장과 규제완화

1판1쇄 인쇄 | 2017년 1월 11일

1판1쇄 발행 | 2017년 1월 19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화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6

ISBN 978-89-8031-790-5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7001890)

CONTENTS

요 약	5
Ⅰ. 논의 배경	15
Ⅱ. 중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과 발전 경과	18
1. 핀테크 산업 발전의 배경과 의미	18
2. 글로벌 핀테크 산업 발전의 특징	20
3. 중국의 핀테크 유형과 산업 규모	22
4. 중국의 핀테크 온라인 전문은행 설립	29
Ⅲ. 중국정부의 규제완화와 핀테크 산업	32
1. 핀테크 산업 성장과 중국정부의 역할: 재정지원 vs. 규제완화	32
2. 중국의 금융규제의 완화와 알리바바 금융사업 발전	34
3. 핀테크 산업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 특징	48
Ⅳ.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51
1. 한국 핀테크 산업의 현황	51
2. 한국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55
참고문헌	59

CONTENTS

표 목 차

〈표 1〉 중국 은행업 유형별 자산 구성비(%) 추이	16
〈표 2〉 핀테크 등장 배경	19
〈표 3〉 핀테크 산업의 기존 상업은행에 대한 영향	20
〈표 4〉 핀테크 글로벌 대표 사업자와 특징	21
〈표 5〉 중국의 핀테크 유형별 산업 규모	25
〈표 6〉 중국의 제3자 지급결제 시장 증가 추이	26
〈표 7〉 중국의 P2P 대출 증가 추이	27
〈표 8〉 중국 위어바오(余额宝) 가입자 수와 가입 금액 추이	28
〈표 9〉 중국 전체 기업대출에서 기업 규모별 대출 비중 추이	33
〈표 10〉 소액대출회사(小額貸款公司)의 주요 특징	40
〈표 11〉 중국의 금리 자유화 내용과 시기	42
〈표 12〉 중국 〈증권투자자기금법(펀드법)〉의 주주관련 규정 수정 비교	43
〈표 13〉 알리바바 마이뱅크 대출 현황(2015년 말 기준)	46
〈표 14〉 중국 온라인 소액대출 상품과 대출 이자율	47
〈표 15〉 알리바바 핀테크 온라인 은행 마이뱅크의 주주 구성	48
〈표 16〉 알리바바의 금융사업 포트폴리오 발전 경과	50
〈표 17〉 한국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52
〈표 18〉 한국과 중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 비교	55

그림 목 차

〈그림 1〉 중국 핀테크 사용자 수와 침투율	23
〈그림 2〉 중국 온라인 보험 판매 보험사와 온라인 보험 수입 추이	28
〈그림 3〉 텐센트 웨이증권은행의 대출 증가 추이	30
〈그림 4〉 중국의 신용카드 산업 발전 추이	35
〈그림 5〉 알리바바 그룹 전체 매출과 당기순이익	36
〈그림 6〉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점유율 현황(2015년 말 기준)	38
〈그림 7〉 한국 은행들의 모바일 banking 이용자 추이	54



1. 논의 배경

- ▶ 최근 핀테크(Fintech)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우위나 경쟁력도 변화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저(低)성장, 장기침체 국면에서 기존 금융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 반면 비(非)금융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산업 수익모델을 도입하는 핀테크(Finance+Technology) 산업은 빠르게 성장
 - 향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산업에서도 ICT 기술과 융합한 핀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금융산업 모델이 많이 창출될 것임
- ▶ 중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 시스템 낙후되어 있다고 인식되고 있었지만, 지난 수년간 핀테크 금융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중국의 핀테크 산업 규모는 2016년 거래 금액이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급성장하고 있음
- ▶ 반면 한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ICT 관련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와 규제의 문제점으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최근 한국에서도 금융산업의 신성장 원동력 발굴을 위한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 과정에서 금융부문 규제완화가 혁신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2. 중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과 발전 경과

(1) 핀테크 산업 발전의 배경과 의미

- ▶ 핀테크(Fintech) 산업은 고객과의 접점이 온라인(on-line)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가능
 - 온라인(On-line) 기반 플랫폼의 등장은 정보통신 기술(ICT)의 발전을 금융산업 분야에 활용하여 금융업무의 처리절차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함
- ▶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기존 은행의 업무영역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존 은행들도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혁신을 유인

(2) 글로벌 핀테크 산업 발전의 특징

- ▶ 초기 핀테크의 업무 영역은 지급결제(payment)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대출, 투자중개, 개인자산관리,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업의 고유영역으로까지 확대
- ▶ 전자 지급결제 영역은 초기 핀테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였으나, 거대 사업자들의 경쟁 심화와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 형태가 뚜렷해지고 있음
 -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약한 IT 기업들이 접근이 쉬운 지급결제 영역에 경쟁적으로 진출했으나, 이미 몇몇 선두주자들이 핀테크 지급결제 영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신규진입에 따른 수익창출 기회가 빠르게 축소
- ▶ 이에 따라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결합된 고도화된 영역으로 핀테크 사업영역이 빠르게 확대, 변화되어 가고 있음

(3) 중국의 핀테크 유형과 산업 규모

- ▶ 중국의 핀테크 산업 규모는 2016년 거래 금액이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급성장하고 있음
 -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 Statista의 추정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핀테크 거래 금액은 4,433억 달러(약 497조 원)로 미국 7,693억 달러에 이어 2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 중국의 핀테크 사용자 수는 2015년 4억 8,900만 명이고, 온라인 사용자 중 핀테크 금융 사용자의 비율은 72%에 달함
 - 중국 핀테크 금융 사용자는 2013년 3억 2,400만 명에서 2014년 4억 1,200만 명, 2015년 4억 8,900만 명으로 2년 사이에 1억 6,500만 명이 증가
- ▶ 중국의 온라인 지급결제는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이 인터넷 지급결제 시장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중국의 온라인 지급결제(제3자 지급결제)는 2015년 시장규모가 11조 9,000억 위안(약 2,000조 원)으로 추정, 2010년 이래 연평균 증가율이 64%에 달함
 -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규모는 2011년 799억 위안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에는 9조 3,000억 위안(약 1,540조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11%에 달함
- ▶ 중국의 P2P 대출 플랫폼은 2010년 대비 2015년 말 260배가 증가하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P2P 대출 실행금액은 2015년 중 9,750억 위안(약 167조 원)으로 2010년 이래 연평균 증가율(CAGR)이 528%에 달하는 급성장
- ▶ 중국 전체 펀드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70%가 제3자 지급결제 또는 전자상거래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판매됨
 - 중국의 온라인 펀드 판매 비중은 2010년 28%에서 2015년 53.2%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 중국 온라인 보험 판매도 2015년 증가율이 20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4) 중국의 핀테크 온라인 전문은행 설립

- ▶ 텐센트(Tencent, 중국명 텅쑤: 腾讯)는 2014년 12월 중국 최초의 온라인 은행 <위뱅크(WeBank): 중국명 웨이중은행(微众银行)>을 설립하였음
 - 텐센트의 위뱅크는 2015년 5월 15일 모바일 대출 플랫폼 웨이리다이(微粒贷)를 출시하고, 중소형 상업은행과 합작으로 고객들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

- 텐센트가 소액 대출을 시작한지 1년 만에 누적 대출 금액이 400억 위안(약 6조 6,800억 원)에 달하고, 3,000만 명에게 대출 제공

▶ 알리바바(阿里巴巴)는 2015년 6월 <마이뱅크(MYbank), 중국명 아리온라인은행(阿里网商银行)>을 설립하였음

- 알리바바 마이뱅크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알리페이(Alipay: 支付宝)와 연계된 소액대출 플랫폼 마이지에베이(蚂蚁借呗)를 출시하였고, 1년 만에 누적 대출 금액은 492억 위안(약 8조 2,000억 원)

3. 중국정부의 규제완화와 핀테크 산업

(1) 핀테크 산업 성장과 중국정부의 역할: 재정지원 vs. 규제완화

▶ 중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핀테크 금융혁신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중국 정부는 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비(非)금융회사가 금융혁신을 주도하도록 기존 은행들의 독점영역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현재 알리바바(阿里巴巴)나 텐센트(腾讯) 등의 ICT 분야의 대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면서 성장

(2) 중국의 금융규제의 완화와 알리바바 금융사업 발전

(가) 온라인 지급결제 영역의 규제 변화

▶ 2000년대 초반 중국정부는 전자상거래 관련 비(非)금융회사가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완

▶ 중국 금융당국이 비(非)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법률을 정식으로 통과시키고 비금융회사에게 지급결제 업무허가증을 발급한 것은 2010년

- 사실상 그 이전 수년 동안은 명확한 관련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비금융사 주도로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발전하였음

- 중국 금융당국이 이전의 금융규제(은행이 지급결제를 담당한다는 기존의 상업은행법, 1995년)를 새롭게 부상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적용하여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았던 것이 중국 핀테크 지급결제 급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임

(나) 온라인 대출 진입장벽 완화와 이자율 규제완화

▶ 2008년 이후 비(非)금융회사나 개인이 자기자본으로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사인 소액대출회사(小額貸款公司) 설립이 허용

- 중국 금융산업에서 대출은 2000년대 중반까지 사실상 은행의 독점영역이었는데, 2006년부터 외국계 은행들이 중국내 법인을 통해 일반인 대상으로 소매금융 사업을 적극 확대하면서 중국 금융당국의 소매금융 대출에 대한 태도가 변화

▶ 알리바바는 비(非)금융회사의 소액대출이 법률로 허용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출관련 금융사업의 경험을 축적

- 2007년 5월 알리바바는 은행과 연계하여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회원사의 대출을 중개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당시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과 개인의 거래 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대출 중개 금융서비스 제공 경험은 이후 알리바바 금융사업의 핵심 경쟁력
- 당시 금융당국은 알리바바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규제의 회색지대로 남겨 둠

▶ 중국 정부가 점진적으로 추진한 “이자율에 대한 규제 완화”(대출 이자율 하한에 대한 규제완화)가 알리바바 대출 금융사업의 시장기회를 제공

- 이는 금융사들 간의 차별화된 경쟁을 유도하여 낮은 이자율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알리바바에게 금융 사업기회를 제공

(다) 온라인 펀드(실질적 예금) 판매 영역의 규제완화

▶ 알리바바는 비(非)금융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2013년 10월 텐홍 자산운용사(天弘基金管理有限公司)의 지분 51%를 소유하여 최대 주주

- 알리바바가 전략적으로 알리페이(즈푸바오) 온라인 제3자 지급결제시스템과 텐홍 자

산운용사를 결합한 혁신적인 온라인 펀드상품 위어바오(余额宝)를 판매

- 온라인 펀드상품 위어바오는 알리바바의 지급결제시스템 알리페이를 수익률이 6%대로 높은 예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큰 인기를 얻고 급성장

▶ 은행들은 알리바바의 위어바오가 급성장하면서 위어바오가 펀드 판매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금융당국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요구불 예금이 급격히 감소
- 은행 측의 주장은 펀드 판매는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
-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펀드 구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흡사 예금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불완전판매’라고 비판

▶ 중국 금융당국은 몇 개월 만에 위어바오가 보편혜택금융(일종의 서민금융)에 기여하는 정당한 금융상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중국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유도

- 한편으로는 위어바오의 추가적인 성장에는 제한을 두고 다른 온라인 업체나 기존 은행들의 유사한 온라인 펀드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일종의 교통정리를 통해 중국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유도

▶ 이러한 핀테크 머니마켓펀드 시장의 확대로 개인 예금투자자들은 투자 리스크가 거의 없이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

(라) 비(非)금융사의 핀테크 온라인 은행업(예금기반 대출) 진출 규제 완화

▶ 2014년부터 중국정부는 비(非)금융사들에게 무(無)점포 온라인 전문은행 설립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면서 핀테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전문회사 등 비(非)금융사에게 2014년 7월 민영은행 예비 인가 허용
- 2015년 5월 27일 텐센트, 알리바바 등 5개 민영은행에 대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였고, 텐센트는 2014년 12월 <위뱅크(WeBank)> 온라인 은행 설립

▶ 알리바바(阿里巴巴)는 2015년 6월 <마이뱅크(MYbank), 중국명 아리온라인은행

(阿里网商银行)>을 설립하였음

-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회사이고, 산하의 알리페이(Alipay: 支付宝)는 중국 전자상거래 결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경쟁 우위와 고객기반

▶ 알리바바 마이뱅크 출범 이후 개인(중국어로 개미를 마이:蚂蚁) 소액 신용대출을 강화하는 등 기존 은행들과는 차별화된 전략 추진하면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 알리바바 마이뱅크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알리페이(Alipay: 支付宝)와 연계된 소액 신용대출 플랫폼 마이지에베이(蚂蚁借呗)를 출시하였고, 1년 만에 누적 대출 금액은 492억 위안(약 8조 2,000억 원), 대출 혜택을 받은 사람은 3,000만 명 이상
- 대출 업무 중에서 기업 대출은 전체 대출의 19%, 개인 대출이 전체 대출의 81%를 차지함
- 대출 규모는 5만 위안 이하의 소규모 대출이고, 대출 이자율은 연 16.4% 이하인 중저금리 서민 신용대출로 중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3) 핀테크 산업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 특징

▶ 중국 정부의 핀테크 산업육성 정책의 특징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육성보다는 점진적인 규제완화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임

- 점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사업기회를 조성하고, 신규 진입자와 기존 금융사들과의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고, 사후적으로 법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사용
- 금융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편혜택금융(普惠金融; 서민금융)이라는 정책 명분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기존 금융사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새로운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수익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음

▶ 중국 정부는 새로운 핀테크 산업이 등장할 때 '실험적인 규제 완화'를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규제방식이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시대의 새로운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으로 효과를 발휘하였음

- 일부 시범 지역이나 기업에 대해 기존의 엄격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이러한 실험을 통해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법률을 보완
- 이러한 실험적이고 예외적인 무규제(無規制)의 '열린 접근법'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금융당국도 이러한 실험을 통해 사후적으로 법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장려함

- 중국 정부의 ‘실험적인 규제완화’는 플랫폼 기반의 시장을 확대하고 서비스 경험을 축적한 선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4.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핀테크 산업의 현황

- ▶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보통신(ICT)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이 있었지만, 법률적인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최근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한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논의와 시도가 과거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음

- ▶ 2014년 말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외국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2015년 5월 6일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핀테크 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세부과제 제시

- ▶ 한국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은 일부 규제완화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규제부분에서는 여전히 규제완화가 되지 못하고 부수적인 서비스나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 정부 주도 시범 사업추진, 재정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음

- 2015년 11월 ‘카카오 은행(카카오 주도)’과 ‘케이뱅크(KT가 주도)’ 2곳에 대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를 허용하였으나, 관련 법률 통과가 불확실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2016년 1월), 온라인 보험 비교가 가능한 ‘보험다모아’ 사이트 개설(2015년 11월)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협회나 정부관련 산하 기관의 주도로 시범적으로 진행 중으로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한계

- ▶ 반면 기존 금융사들의 핀테크 회사에 대한 M&A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은행들이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기존 인터넷 बैं킹과의 차별화 어려움, 중복 투자 문제, 신규 가입자 확보 문제 등이 장애 요인

- 일부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 시스템 구축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높은 예금 이자율과 낮은 대출 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

▶ 핀테크 금융업 발전에서 결정적인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비(非)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단기간 내에 어려울 전망

- 현행 한국의 <은행법> 16조2항 ‘비(非)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제한 규정’에 따라 전체 은행 의결권 주식의 4%(소유 지분은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는 소위 은산(銀産)분리 규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

(2) 한국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비(非)금융 산업에서 확실한 고객기반과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한 비(非)금융회사가 주도하였음

- 한국에서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고, 오히려 기존 금융사나 정부가 주도하여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이 어려움

▶ 중국 핀테크 산업의 기반이 되는 모바일 결제분야나 송금 등의 분야에서는 대세추종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핀테크 접근성을 높여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였음

- 대세추종 현상은 핀테크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보안에 대한 투자나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
- 반면 한국에서는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중소형 핀테크 사업자들이 경쟁하면서 대세추종 현상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확실한 수익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핀테크 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중국 정부는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로 신규 시장과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을 통해 금융혁신을 유도하였음

- 중국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직접적인 육성정책 보다는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유도
- 반면 한국의 1년간 성과는 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구 설립, 정부 재정지원, 정부주

도의 시범 핀테크 사업 등에 국한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이 기존 금융권의 수익기반을 침해하는 경우 보편혜택금융(서민금융)에 기여하는 금융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

- 반면 한국에서 기존 금융권의 모바일 뱅킹 등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는데, 이는 기존 인터넷 뱅킹과의 차별화 어려움, 중복투자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보편혜택금융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음

▶ 중국 정부는 핀테크 신규 성장산업 출현 초기에 명확한 정책방향 설정과 시범적인 허용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높여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

- 핀테크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추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많은 서비스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고 나아가 관련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 경쟁력

- 나아가 최근 알리페이 등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핀테크 생태계는 점차 국경간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핀테크 금융 플랫폼을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중국 정부는 신규 성장산업에 대해 '실험적인 규제 완화' 접근방법을 활용하면서, 정책 담당자가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사후적으로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사후적으로 보완하여 법제도적인 환경을 완성하고, 지나친 독점이나 부실 등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여 이를 보완함

- 반면 한국은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문제나 여론 비판 등의 이유로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률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핀테크 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음



I. 논의 배경

▶ 최근 핀테크(Fintech)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우위나 경쟁력도 변화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저(低)성장, 장기침체 국면에서 기존 금융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 과거 고(高)성장 시기에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의 차입(leverage)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였지만, 최근 저성장 시기에는 기업들이 수요부족을 우려하여 투자를 축소하고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금융기관 차입 상환)을 진행하면서 금융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약화되고 있음
- 반면 비(非)금융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산업 수익모델을 도입하는 핀테크(Finance+Technology) 산업은 빠르게 성장
 - 전자상거래(E-commerce)와 스마트폰의 확산은 ICT 기업이 핀테크를 활용한 소매금융 중심의 금융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
- 향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산업에서도 ICT 기술과 융합한 핀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금융산업 모델이 많이 창출될 것임
 -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초연결, 초지능, 대융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ICT 기술이 기존 산업과 전방위적으로 융합하여 스마트카(ICT+자동차), 드론(ICT+항공), 핀테크(ICT+금융) 등 다양한 신성장 산업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중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 시스템 낙후되어 있다고 인식되고 있었지만, 지난 수년간 핀테크 금융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핀테크 산업 규모는 2016년 거래 금액이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급성장하고 있음
 -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 Statista의 추정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핀테크 거래 금액은 4,433억 달러(약 497조 원)로 미국 7,693억 달러에 이어 2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¹⁾

1) 한국은행(2016),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2016-5호

- 중국의 거래 금액은 3위 영국(1,673억 달러), 4위 일본(1,367억 달러), 5위 독일(1,171억 달러)의 거래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예상
- 하지만 최근까지도 중국은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금융지원의 역할을 국유은행들에게 부과하였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음
- 중국 은행산업에서 사실상의 국유은행인 5대 은행(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의 비중은 2016년 5월 기준으로 여전히 37%로 높은 상황임(<표 1> 참조)
-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6)에서 ‘중국 은행들이 부실기업 부채를 떠안게 되면 최대로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7%(약 840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²⁾
- 중국 기업 부채 중 부실채권은 전체 대출의 1/7 수준인 1조 3,000억 달러(약 1,5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

<표 1> 중국 은행업 유형별 자산 구성비(%) 추이

	대형상업 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 상업은행	농촌 은행 *	농촌 신용사 (农村 信用社)	우체국 은행, 신형농촌 금융기구**	외국계 은행
2004	57.0	11.5	5.4	0.2	9.7	3.4	1.8
2005	56.1	11.9	5.4	1.5	8.4	3.7	1.9
2007	53.7	13.7	6.3	2.4	8.2	3.3	2.4
2009	51.3	14.9	7.1	3.9	6.9	3.4	1.7
2010	49.2	15.6	8.2	4.5	6.7	3.7	1.8
2011	47.3	16.2	8.8	5.0	6.4	3.8	1.9
2012	44.9	17.6	9.2	5.7	5.9	4.0	1.8
2013	43.3	17.8	10.0	6.4	5.7	4.1	1.7
2014	41.2	18.2	10.5	7.2	5.1	4.1	1.6
2015 *	39.2	18.6	11.4	12.9		18.0 (***)	
2016.5	37.0	18.7	11.8	13.5		19.0 (***)	

주: * 농촌은행은 농촌상업은행(农村商业银行)과 농촌합작은행(农村合作银行)

** 촌진(村鎮)은행은 신형농촌금융기구로 분류

*** 우체국은행, 외자은행 외에 정책은행, 민영은행 등 포함

자료: CEIC(2015년 10월 5일) / * 2015년, 2016년 5월 자료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2) “中 기업부채가 최대위협…IMF "1,500조 원 달해”, 매일경제, 2016.04.14.
<http://news.mk.co.kr/newsRead.php?no=273654&year=2016>

▶ 반면 한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ICT 관련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와 규제의 문제점으로 핀테크 금융산업의 발전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최근 한국 금융산업도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산업의 신성장 원동력 발굴을 위한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 추진계획을 제시³⁾
- 하지만 한국에서는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제도와 규제가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중국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과 금융부문 규제완화가 그 혁신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의 핀테크 금융산업과 같은 새로운 융합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완화와 전략적 방향 설정이 관련 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임

3) 금융위원회 블로그



II. 중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과 발전 경과

1. 핀테크 산업 발전의 배경과 의미

▶ 핀테크(Fintech) 산업은 고객과의 접점이 온라인(on-line)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가능

- 기존 금융회사들은 고객과의 접점이 오프라인(off-line) 지점(branch)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핀테크 회사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플랫폼(platform: 중국어 平台)인 온라인에서 고객과의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온라인(On-line) 기반 플랫폼의 등장은 정보통신 기술(ICT)의 발전을 금융산업 분야에 활용하여 금융업무의 처리절차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함
 - 예를 들면 핀테크 금융산업의 대표 사례인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의 유지비용, 예금과 대출 심사 관련 인력비용, 각종 문서화된 서류처리 비용, 고객과의 접근성에서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장점을 가짐⁴⁾
 - 이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오프라인 지점을 기반으로 강력한 보안 시스템, 고객 상담, 제도권 기관들과의 연계에 기반한 신용평가, 보안 및 신뢰성을 확보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특징임⁵⁾

4) 김희철(2009),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법적 논점 및 바람직한 도입 방안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No.28 : 399-428, p.401

5) 문병순, 허지성(2014),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4.12.3. : 24-35, p.26

〈표 2〉 핀테크 등장 배경

	내용
모바일 소비환경의 등장	- 오프라인이 아니라 모바일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소비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 - 모바일 지급결제, 송금 등 핀테크의 잠재력이 폭발
ICT 기술혁신, 빅데이터	- SNS와 스마트폰 등장 이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 등장 - 데이터 안의 숨겨진 의미 있는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금융이 신용분석, 대출, 자산운용으로 확장
기존 금융시장의 한계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대출, 저금리에 수익 감소 등으로 기존 금융사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 필요 - 핀테크의 혁신적인 금융기업을 활용한 수익 모델 활용
글로벌 IT 기업의 치열한 경쟁	- 글로벌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급성장과 경쟁 과열로 모바일 금융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글로벌화 되고 있음 - 중국은 2009년에서 2014년 5년 사이에 모바일 전자 상거래가 2,600억 위안에서 2조 7,900억 위안으로 10배 이상 급성장

자료: 고원택(2015), p.146) 일부 재정리

▶ 나아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기존 은행의 업무영역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존 상업은행들도 핀테크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혁신을 유인할 수 있음

- 반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예대(預貸) 마진에 의존하는 기존 상업은행의 수익기반을 약화시켜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임
- 핀테크 산업은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존 고객기반을 공격하여 수익기반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지만⁷⁾, 기존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증시되지 않았던 소액 대출, 소액 예금 고객층을 확대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금융 산업 시장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
- 댄 숄만 페이팔(Paypal) CEO는 핀테크로 대표되는 금융 산업의 변화를 화폐(money)의 디지털화, 화폐의 모바일화, 화폐 이용관련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산업과 제품 간 경계의 모호화, 금융 보안문제의 심화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⁸⁾

6) 고원택(2015), “핀테크(Fintech)의 주요 서비스 및 주요국 동향”, 『주간기술동향』, ICT 기획시리즈, 2015.3.11

7) 邱峰(2013), “互联网金融对商业银行的冲击和挑战分析”, 《吉林金融研究》2013年 08期, 庞雅心(2014), “互联网金融对传统商业银行发展的影响”, 《金融经济》2014年 第08期

8) 김정옥, 박봉권, 노영우, 임성현(2016), 『2016 다보스포럼』, 매일경제신문사

〈표 3〉 핀테크 산업의 기존 상업은행에 대한 영향

항목	내용
예금	핀테크 펀드가 상업은행의 예금을 흡수하여 기존 은행의 고객 기반을 약화시키고, 금융상품 판매중개를 확대하면서 상업은행의 위탁판매 업무 약화
이자율	핀테크 금융상품과의 경쟁을 통해 은행의 평균 예금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은행의 이자차익에 의한 수익(예대 마진) 감소
지급결제	제3자 지급결제회사 등 핀테크 지급결제가 은행의 지급결제 분야의 독점적 구조를 위협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창출
대출	핀테크 회사가 상업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신용공급 단일화 현상을 변화시켜, 신용공급 경로가 광범위하게 다양해짐

자료: 逢亚男(2014)⁹⁾ 바탕으로 필자 재정리

2. 글로벌 핀테크 산업 발전의 특징

▶ 초기 핀테크의 업무 영역은 지급결제(payment)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대출, 투자중개, 개인자산관리,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업의 고유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핀테크 영역을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표 4>와 같이 금융업무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플랫폼 영역으로 구분¹⁰⁾
- 지급결제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 기존 결제 수단(은행 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우회하는 형태(에스크로 서비스¹¹⁾, 선불결제, 모바일 지갑, 자체 신용 창출)로 결제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
-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구축된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를 오프라인 영역까지 확대하는 O2O(Online to Offline) 형태¹²⁾까지 확대되고 있음

9) 逢亚男(2014), “互联网金融对传统商业银行的冲击及其应对策略”, 《经济视角(上旬刊)》, 2014年 第05期

10)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15), 『부상하는 Fintech 동향과 IT 및 금융업에 대한 시사점』, FKII Issue report, 2015-02, p.9

11) 에스크로 서비스(Escrow)는 온라인 거래의 지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물품 인도 전(前)까지 거래대금을 온라인 가상결제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된 이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국어로는 제3자 지급결제보증 플랫폼(第三方支付平台) 서비스라고 한다. 대표적인 서비스 업체는 미국 전자상거래 대표업체인 이베이(E-bay)에서 시작된 페이팔(Paypal)과 중국 최대이자 이체는 전세계 최대로 성장한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阿里巴巴; 1688.com)의 알리페이(alipay: 支付宝) 등이다.

12) 핀테크 전자결제가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를 연동하여 스마트폰 하나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오프라인 매장의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바일 결제방식인 구글 월렛(Google Wallet; 2011년 도입), 애플 페이(Apple

- 핀테크 송금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의 복잡한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가상 화폐,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핀테크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과 자금 중개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담당하지 않았던 P2P 대출¹³⁾, 크라우드 펀딩¹⁴⁾ 등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예금 수취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책임 하에 심사를 통해 대출하는데, 거래이력에 따른 신용등급에 의존하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신용자들 과 금융 거래이력이 없는 사람은 자금 조달에서 소외되었던 문제를 핀테크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자금 중개로 극복이 가능

〈표 4〉 핀테크 글로벌 대표 사업자와 특징

분야		대표 사업자	특징
금융 업무	결제	Paypal, 스트라이프, 스퀘어	- 간편하고 낮은 수수료로 이용편의성 제고 및 비용절감 - 다양한 결제 방식과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형태로 편리성 제공
	송금	벤모, 아지모 비트코인, M-Pesa	- 인터넷 기반으로 송금 주체 간을 직접 연결해 비용 및 거래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 - 온라인 가상 화폐 및 전자 대안 화폐 등장
	플랫폼	렌팅클럽, 캐비지	- P2P(Peer-to-Peer) 형태로 자금을 중개하는 금융서비스 -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온라인 자금 거래 환경을 제공
기술	데이터분석	어펌, 빌가드	- 개인과 기업 등이 창출하는 방대한 범위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최적화된 서비스(이자율, 금융상품, 결제방식 등)를 전달
	금융 소프트웨어 (S/W)	웰스프론트, 민트	- 진화된 알고리즘과 UI(사용자 인터페이스)등 IT 기술을 활용 해 기존보다 저비용의 스마트한 금융(자산, Bill 관리 등) 서비스 환경을 제공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2015), p.9 재인용

▶ 전자 지급결제 영역은 초기 핀테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였으나, 거대 사업자들의 경쟁 심화와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 형태가 뚜렷해지고 있음

Pay: 2014년 도입), 그리고 삼성이 2015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삼성페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13) P2P 대출이란 Peer-to-Peer Lending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다. 웹사이트나 SNS를 활용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셜론(Social Loan)'으로 불리기도 한다(Naver 검색).

14)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뜻으로 소셜미디어(Social Media)나 인터넷 등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을 지칭한다(Naver 검색).

- 과거에는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약한 IT 기업들이 접근이 쉬운 지급결제 영역에 경쟁적으로 진출했으나, 이미 몇몇 선두주자들이 핀테크 지급결제 영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신규진입에 따른 수익창출 기회가 빠르게 축소됨

▶ 이에 따라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결합된 고도화된 영역으로 핀테크 사업영역이 빠르게 확대, 변화되어 가고 있음

- 빅데이터(Big-Data) 분석과 인공지능 컴퓨팅 등의 기술발전을 신용평가, 자금 운용 및 기업 금융에 결합한 형태로 핀테크의 사업영역이 확장
 - 최근 핀테크는 대출, 투자중개, 개인자산관리, 보험 등 금융업 고유의 영역까지 확대

3. 중국의 핀테크 유형과 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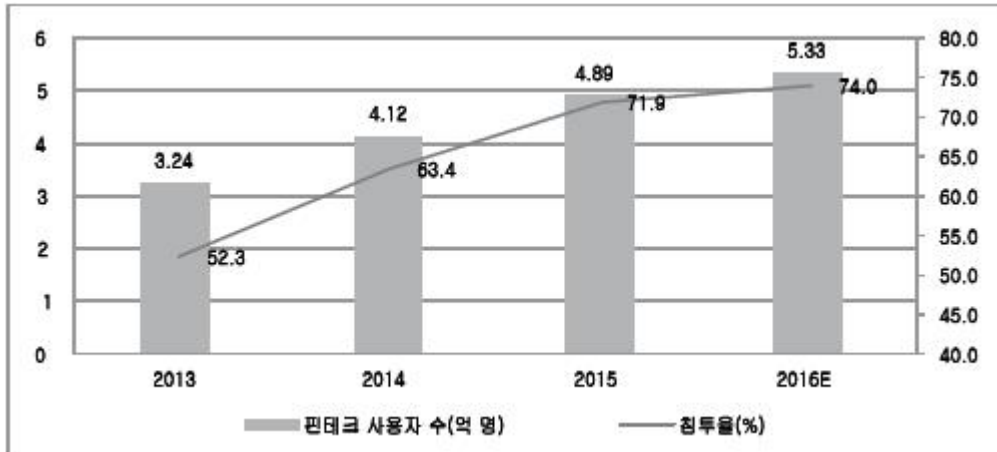
▶ 중국의 핀테크 산업 규모는 2016년 거래 금액이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급성장하고 있음

-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 Statista의 추정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핀테크 거래 금액은 4,433억 달러(약 497조 원)로 미국 7,693억 달러에 이어 2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¹⁵⁾
 - 중국의 거래 금액은 3위 영국(1,673억 달러), 4위 일본(1,367억 달러), 5위 독일(1,171억 달러)의 거래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예상
- 중국 내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핀테크 시장 규모는 9조 2,200억 위안(약 1,5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그 중 핀테크 펀드 판매는 6,000억 위안, 온라인 소액대출 규모는 5,000억 위안, P2P 시장 규모는 1,000억 위안, 크라우드 펀드 시장 규모는 100억 위안 등으로 추산하고 있음¹⁶⁾

15) 한국은행(2016),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2016-5호

16) 新浪科技(2015), “2015年中国互联网金融市场规模超10万亿” 2015年05月7日
<http://www.199it.com/archives/345685.html>

〈그림 1〉 중국 핀테크 사용자 수와 침투율



자료: 新浪科技(2015)

▶ 중국의 핀테크 사용자 수는 2015년 4억 8,900만 명이고, 온라인 사용자 중 핀테크 금융 사용자의 비율은 72%에 달함(新浪科技, 2015)

- 중국 핀테크 사용자는 2013년 3억 2,400만 명에서 2014년 4억 1,200만 명, 2015년 4억 8,900만 명으로 2년 사이에 1억 6,500만 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22.8%에 달함
- 온라인 사용자 중에서 핀테크 금융 이용자 수의 비율인 핀테크 침투율은 2013년 52%에서 2014년 63%, 2015년 72%로 급상승하고 있음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銀行)은 2014년 중국금융안정보고서(中国金融稳定报告)에서 중국내 핀테크 형태와 규모는 다음과 같음¹⁷⁾

- ① 온라인 지급결제(互联网支付)로 새로운 지급결제 업체가 온라인 기술을 이용하여 지급인(付款人)과 수취인(收款人) 사이에서 금전의 이전(划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 대표적인 형태로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중국명 즈푸바오: 支付宝)가 있음
- ② P2P 온라인 대출(P2P网络借贷)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의 정보 상호교환, 중재(撮合), 신용평가, 법률적인 수속대리 등의 중개업무 서비스 플랫폼
 - 전형적인 형태로는 이신(宜信)¹⁸⁾과 런런다이(人人贷)¹⁹⁾

17) 서봉교(2015), “중국의 핀테크 금융혁신과 온라인은행의 특징”, 『동북아경제연구』, 27권4호, 163-199의 내용 중 p.169~171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18) <http://www.creditease.cn/index.html>
 이신은 2006년 설립된 회사로 P2P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신그룹은 자산관리, 신용평가, 신용 데이터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이다.

- ③ 非P2P 핀테크 소액대출(非P2P的网络小额贷款) 방식으로 온라인 업체가 그 자회사인 소액대출회사(小额贷款公司)를 통해, 다른 자회사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방식
 - 전형적인 형태로는 알리바바 알리파이낸스(阿里金融)
- ④ 크라우드 펀딩(众筹融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의 발기인이 창업이나 기타 활동을 위해 소액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 대표적인 사례는 텐스웨이(天使汇: AngelCrunch)²⁰나 디엔밍스젠(点名时间)²¹)
- ⑤ 기존 금융회사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설립한 경우로, 기존 금융사들이 고객을 위해 전자상거래나 금융서비스 종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형
 - 건설은행의 “산릉상우(善融商务)”, 교통(交通)은행의 “자보훤(交博汇)”, 자오상(招商)은행의 “페이창e고우(非常e购)”와 보험사인 “중안자이셴(众安在线)” 등이 있음
- ⑥ 온라인을 통한 펀드 판매로 자산운용사가 자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제3의 전자상거래 펀드판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 알리바바의 “위어바오(余额宝)”, 텡쉰(Tencent: 腾讯)의 “리차이통(理财通)” 등이 있음
- 이들 각각의 핀테크 유형별 산업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인민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그 규모를 다음의 <표 5>와 같이 정리하였음

19) <http://www.renrendai.com/>

런런다이는 2014년 1월 1일 설립된 P2P 신용대출 서비스 플랫폼이다. 런런다이는 스스로 하는 금융이라는 뜻으로, 중국3A신용평가사와 인터넷 회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2014년 대출금액이 37억 위안, 누적 대출금액이 60억 위안에 달하고 등록 회원수는 100만 명에 달한다.

20) <http://angelcrunch.com/>

텐스웨이는 중국 최대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창업 투자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미 2,000명 이상의 공인 투자자가 300여개의 프로젝트에 30억 위안 이상의 투자를 달성하였다.

21) <http://www.demohour.com/>

디엔밍스젠은 2011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스마트 소프트웨어 산업 전문 창업관련 투자 플랫폼이다.

〈표 5〉 중국의 핀테크 유형별 산업 규모

구분	대표 유형	산업 규모
온라인 지급결제 (互联网支付)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2013년 온라인 지급결제 건수는 153억 건, 결제 금액은 9조 2,200억 위안
P2P 온라인 대출 (P2P网络借贷)	이신(宜信), 런런다이(人人贷)	2013년말 P2P 온라인 대출 플랫폼은 350개 이상, 누적 거래금액은 600억 위안 이상
非P2P 핀테크 소액대출 (非P2P的网络小额贷款)	알리파이낸스 (阿里金融)	2013년말까지 알리바바 산하의 3개 소액대출회사(이외에도 많음)만도 누적 대출액은 1,500억 위안, 고객 수는 65만명, 대출 잔액은 125억 위안
크라우드 펀딩 (众筹融资)	텐스웨이(天使汇: AngelCrunch)	2013년 21개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텐스웨이의 회원수는 2만 명, 투자승인 840명, 대출 금액은 2억 5,000만 위안
기존 금융회사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건설은행의 산통상우(善融商务)	대부분의 은행이 온라인 플랫폼 보유
온라인 펀드판매 플랫폼	알리바바의 위어바오(余额宝)	위어바오(이외에도 수많은 온라인 펀드판매 플랫폼 존재)의 규모는 2,500억 위안, 사용자 수는 4,900만 명

자료: 中国金融稳定报告(2014), p.147

▶ 중국의 온라인 지급결제는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이 인터넷 지급결제 시장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²²⁾

- 중국의 온라인 지급결제(제3자 지급결제)는 2015년 시장규모가 11조 9,000억 위안(약 2,000조 원)으로 추정, 2010년 이래 연평균 증가율이 64%에 달함
-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규모는 2011년 799억 위안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에는 9조 3,000억 위안으로 급상승
 - 2011년에서 2015년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규모는 연평균 증가율이 210%로, 온라인 지급결제 시장규모 연평균 증가율 64%의 3배 이상에 달함
- 이는 중국이 기존 유선(有線: cable)통신망 기간시설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선(無線: wireless)통신망이 빠르게 보급되는 기술적 도약(leap-frog) 단계이기 때문임
 - 중국은 거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위성을 이용한 무선 통신망이 유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임

22) 아래의 핀테크 산업규모를 추정하는 제3자 지급결제와 P2P대출, 온라인 펀드판매 내용은 이성복(2016),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자본시장연구원의 p.10~15 부분을 요약 정리하였음

〈표 6〉 중국의 제3자 지급결제 시장 증가 추이

(단위: 조 위안)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
온라인 결제	1.0	2.2	3.7	5.4	8.1	11.9	64.1
모바일 결제	-	0.1	0.2	1.2	6.0	9.3	210.6

자료: 清科研究中心(2015)²³⁾, 财经网²⁴⁾

▶ 중국의 P2P 대출 플랫폼은 2010년 대비 2015년 말 260배가 증가하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말 P2P 대출 플랫폼은 3,687개로 그중 1,924개 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임
 - 최근 P2P 대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 은행, 대기업, 벤처캐피탈(VC) 등도 P2P 대출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하지만 P2P 대출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고, 규제감독이 강화되면서 2015년 말 기준 전체 대출 플랫폼 중에서 절반 정도인 1,773개가 부실 플랫폼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은 1,924개임
- P2P 대출 실행금액은 2015년 중 9,750억 위안(약 167조 원)으로 2010년 이래 연평균 증가율(CAGR)이 528%에 달하는 급성장
 - P2P 대출 잔액도 2015년 말 기준으로 5,582억 위안(약 93조 원)인데, 대출 실행금액 대비 대출 잔액의 비율이 57%로 낮은 것은 P2P 대출의 평균 대출 만기가 6.7개월 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임

23) 清科研究中心(2015), 2015年中国互联网金融行业投资研究报告, 2015年 4月

24) <http://mt.sohu.com/20160127/n436069014.shtml>

〈표 7〉 중국의 P2P 대출 증가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
P2P 대출 플랫폼 수 (개)	10	50	200	800	1,575	3,657	225.6
P2P 대출 실행액 (억 위안)	1	31	212	1,058	2,528	9,750	527.8
P2P 대출 잔액 (억 위안)	1	12	56	268	1,036	5,582	461.5

자료: 清科研究中心(2015)²⁵⁾, 零壹财经²⁶⁾

▶ 중국 전체 펀드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70%가 제3자 지급결제 또는 전자상거래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판매됨²⁷⁾

- 중국의 온라인 펀드 판매 비중은 2010년 28%에서 2015년 53.2%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특히 전체 펀드 판매에서 제3자 지급결제 또는 전자상거래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펀드의 비중은 2010년 3.5%에서 2015년 37.4%로 급성장
- 온라인 펀드 판매에서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판매 비중은 같은 기간 13%에서 70%로 급상승
- 대표적인 온라인 머니마켓펀드(MMF)인 알리바바의 위어바오(余额宝)는 2014년 말 투자자 수가 1억 5,000만 명, 투자금액은 5,789억 위안(약 98조 원)에 달하였음
- 2013년 6월 12일 알리바바는 중국 내에서는 최초로 제3자 지급결제 계좌(알리페이)의 현금을 텐홍 자산운용사(天弘基金)에 위탁 운용하여 그 투자수익을 이자처럼 돌려주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인 위어바오(余额宝)를 도입
-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위어바오의 펀드 규모는 7,600억 위안(약 127조 원) 으로, 유효 고객 수는 9,000만 명에 달함²⁸⁾

25) 清科研究中心(2015), 2015年中国互联网金融行业投资研究报告, 2015年 4月

26) <http://01caijing.baijia.baidu.com/article/286273>

27) 이성복(2016), 위의 논문

28) 张涛(2016), “我国互联网金融的发展与监管”, 《武汉金融》, 2016年 01期

〈표 8〉 중국 위어바오(余额宝) 가입자 수와 가입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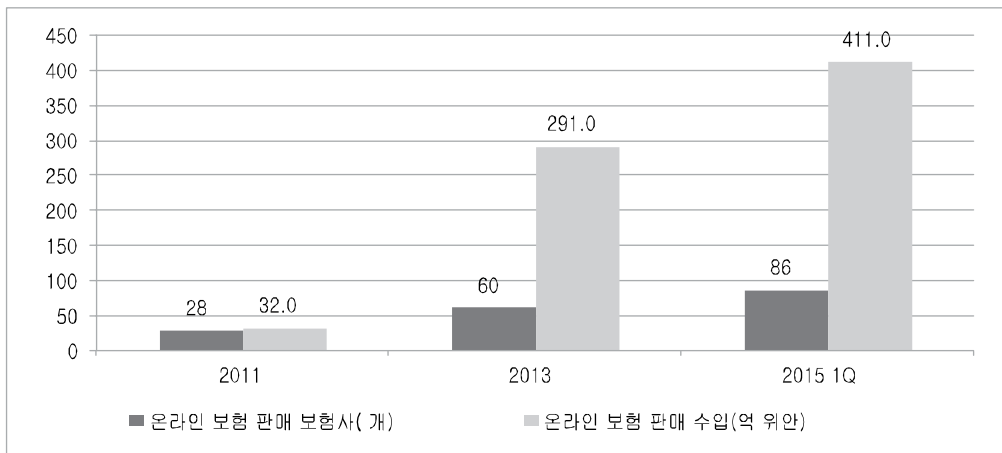
	2013년 6월 30일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5일	2014년 2월 27일	2014년 6월 말	2014년 말
펀드 가입자 수(명)	252만	4,303만	4,900만	8,100만	1억 이상	1억 5천만
펀드 가입 금액(위안)	66억	1,853억	2,500억	5,000억	5,413억	5,789억

자료: 서봉교 외(2015)²⁹⁾, p.105

▶ 중국 온라인 보험 판매도 2015년 증가율이 20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清科研究中心, 2015)

-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86개 보험회사가 온라인 보험 판매 업무를 하고 있고, 온라인 보험판매 수입은 41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07.5%가 증가하였음
- 2015년 1분기 중국 전체 보험료 수입은 8,425억 위안으로 온라인 보험판매 수입의 비중은 전체의 4.9%에 달함

〈그림 2〉 중국 온라인 보험 판매 보험사와 온라인 보험 수입 추이



자료: 清科研究中心(2015)

29) 서봉교, 최낙섭(2015), “중국 신금융상품 위어바오의 성장과 중국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 『동북아경제연구』, 26권 3호: 93-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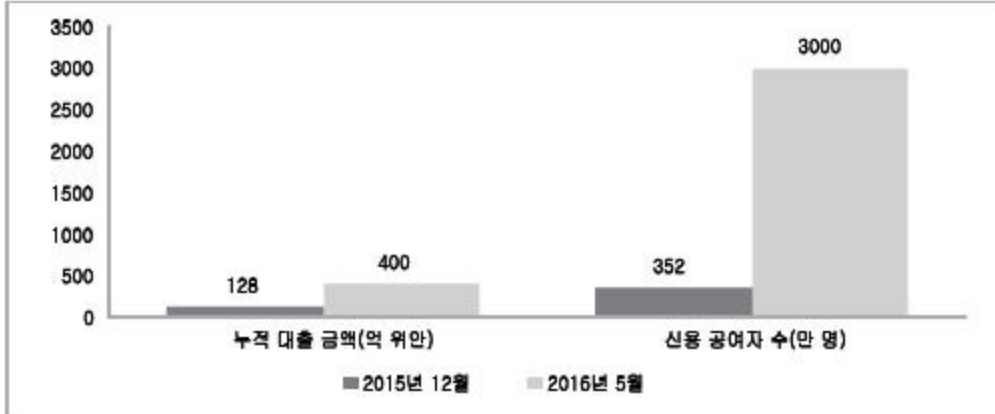
4. 중국의 핀테크 온라인 전문은행 설립

▶ 텐센트(Tencent, 중국명騰訊)는 2014년 12월 <위뱅크(WeBank): 중국명웨이중은행(微众银行)> 온라인 은행을 설립하였음

- 텐센트는 중국 최대의 인터넷 회사이며, 중국 최대의 인터넷 메신저 “QQ”와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 WeChat)”을 보유
 - 텐센트의 회원 수는 약 6억~8억 명 수준
- 텐센트는 이러한 SNS 부문의 독보적인 우위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기 있는 핀테크 대표 상품(킬러 콘텐츠)을 보유하고 있음
 - QR 코드를 이용하는 편리한 소액 무료 웨이신 계좌이체, 더치페이 지급(AA收款), 송금+예금+금융투자에 강점을 가진 재테크 상품 리차이퉁(微信理财通), 모바일 결제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위챗페이(Wechat-pay)” 등 대표적인 킬러 콘텐츠를 보유하여 광범위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었음
- 텐센트의 위뱅크는 2015년 5월 15일 모바일 대출 플랫폼 웨이리다이(微粒贷)를 출시하고, 중소형 상업은행과 합작으로 고객들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
 - 텐센트는 웨이신(微信)과 웨이신 돈지갑(微信钱包), 웨이신 재테크(资金理财) 등의 기존 대출과 예금 플랫폼들을 통합하여 웨이리다이(微粒贷)를 출시하였음
 - 2015년 9월부터는 웨이리다이 대출의 80%를 합작을 체결한 25개 중소형 상업은행을 통해서 대출하고 있으며, 합작 대출의 경우 이자 수익은 7:3(은행:텐센트)으로 배분하고 있음
- 텐센트가 소액 대출을 시작한지 1년 만에 누적 대출 금액이 400억 위안(약 6조 6,800억 원)에 달함³⁰⁾
 - 2016년 5월 15일까지 1년 만에 웨이리다이 신용공여자(授信) 수는 3,000만 명, 평균 건당 대출 금액은 8,000위안(약 134만 원) 전후 임
 - 대출 지역은 전국 31개 성, 549개 도시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고객의 64.8%는 25세에서 35세 사이이고,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자가 72%를 차지함
 - 대출 신청과정에서 대출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4초이고, 대출 자금이 고객의 계좌로 이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초임

30) 中国经济网(2016). “微众银行微粒贷一周成绩单：发放贷款超400亿元”，2016年 05月 17日
http://finance.ifeng.com/a/20160517/14389095_0.shtml

〈그림 3〉 텐센트 웨이중은행의 대출 증가 추이



자료: 웨이중은행 홈페이지, 中国经济网(2016)

▶ 알리바바(阿里巴巴)는 2015년 6월 <마이뱅크(MYbank), 중국명 아리온라인은행(阿里网商银行)>을 설립하였음

- 알리바바 마이뱅크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알리페이(Alipay: 支付宝)와 연계된 소액대출 플랫폼 마이지에베이(蚂蚁借呗)를 출시하였고, 1년 만에 누적 대출 금액은 492억 위안(약 8조 2,000억 원)

▶ 2016년 6월, 모바일 스마트폰 중심의 종합가전업체이자 독자적인 모바일 스마트폰 운영시스템(MIUI) 개발회사인 샤오미(小米) 역시 핀테크 온라인 전문은행 설립 인가를 취득하였음³¹⁾

- 샤오미는 전자상거래(알리바바)나 SNS(텐센트) 등 기존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강력한 지배력을 보유한 거대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과는 다른 형태의 핀테크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샤오미는 가성비(cost performance ratio)가 높은 스마트폰 단말기를 출시하여 제품 출시 3년이라는 단시간 내에 중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고, 이 스마트폰에 독자적인 모바일 운영시스템(MIUI)을 장착하였음
- 샤오미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우위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주변기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오디오, CCTV 등 주변 생활가전 분야까지 결합하는 모바일 가전 생태계를 창출하고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마니아 층을 형성하였음

31) 임재호(2016), “샤오미의 은행업 진출의 의미와 시사점”, 『월간 금융경제동향』, 6권 7호, 이슈브리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3

- 나아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투자하거나 성과가 나타난 기업들을 M&A하는 방식을 통해 스마트 하드웨어 생태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2011년 설립된 벤처 투자펀드 ‘순웨이(順爲)펀드’는 1차 모집된 자금이 2억 2,500만 달러, 2014년 2차 모집 펀드는 3억 1,500만 달러였고, 이를 판커칭핀(凡客诚品), 뒤완(多玩) 여우스커(视科技), 라카라(拉卡拉), 다제왕(大街网) 등 많은 기업에 투자하였음³²⁾
- 따라서 샤오미가 구상하는 핀테크 온라인 전문은행의 성공은 이러한 샤오미의 생태계를 적극 지지하는 1억 명 이상의 샤오미 팬들(미핀: 米粉)에게 어떠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음

32) LG경제연구원(2014), “샤오미와 레이권의 도전과 전략”, 『LG瞭望中國』, p.30



III. 중국정부의 규제완화와 핀테크 산업

1. 핀테크 산업 성장과 중국정부의 역할: 재정지원 vs. 규제완화

▶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에서 중국 정부의 핀테크 산업육성 정책의 특징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육성보다는 점진적인 규제완화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임

- 중국 정부의 역할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이었는지에 따라서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 제언에 시사점이 다를 수 있음
- 중국 정부의 역할은 금전적인 재정지원 정책, 규제 완화, 정책방향 설정 등 다양한 부분이 있었음
- 중국정부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13차5개년 계획(2016년~2020년 規劃)의 핵심적인 산업정책인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정책의 하나로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인터넷플러스 11대 중점분야로는 창업혁신, 협업제품상거래, 현대농업, 스마트에너지, 인클루시브 금융(inclusive finance³³⁾), 주민수혜서비스, 스마트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녹색생태, 인공지능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핀테크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임
- 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더구나 금전적인 정책 재정지원이 핀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인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예를 들면 중국정부가 재정지원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산업 부문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의 성과는 뚜렷하지 못하였음

33) 소외 계층이 없게 사회 전반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서민금융(普惠金融)이라고 번역할 수 있음

▶ 기존 중국 은행들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전반의 자금투자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은 핀테크 혁신에 중국정부의 산업정책 지원이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중국정부는 금융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금융공작보고(金融工作報告)에서 오래 전부터 경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문이 ‘중소기업 지원확대’, ‘소비자 금융 지원’, ‘혁신 창업활동 지원’ 등에 노력하도록 정책목표를 설정
- 하지만 5대 은행 등 국유은행 성격이 강한 기존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기존 금융거래 관계가 밀접한 국유 대기업 부문 위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 금융권은 리스크가 있는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안정적인 영업모델을 지속하거나 그 규모를 확대하는 성장전략을 선호
 - 이에 따라 중국 전체 은행 대출 중에서 국유 대기업 부문의 대출 비중은 여전히 높은 반면 이들 국유 대기업의 수익성은 매우 낮음

〈표 3-1〉 중국 전체 기업대출에서 기업 규모별 대출 비중 추이

(단위: 억 위안, %)

	전체 기업대출	대형기업	대형 비중(%)	중형기업	중형 비중(%)	소형기업	소형 비중(%)
2009年	275,487	118,447	43.0	98,650	35.8	58,390	21.2
2010年	317,758	134,200	42.2	98,026	30.8	85,533	26.9
2011年*	333,132	126,953	38.1	116,640	35.0	89,539	26.9
2012年*	385,100	141,298	36.7	134,719	35.0	108,700	28.2
2013年*	428,322	155,994	36.4	149,269	34.8	122,500	28.6
2014年*	483,620	171,750	35.5	169,270	35.0	141,700	29.3
2015년	687,728	n.a	n.a	n.a	n.a	234,600	36.6

자료: CEIC(검색일 2014년 12월 26일), 2015년은 인민은행 중국금융운영보고

주: *는 모두 6월 말 기준 자료, 소형기업에는 영세(微型)기업도 포함

▶ 중국 정부는 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비(非)금융회사가 금융혁신을 주도하도록 기존 은행들의 독점영역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new player)가 금융혁신을 주도하도록 유도

- 현재 중국의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알리바바(阿里巴巴)나 텐센트(腾讯) 등의 ICT 분야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정부의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면서 성장하였음
- 중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제조업 부문의 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데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혁신적인 새로운 플레이어가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가 있음
 - 예를 들면 중국을 대표하는 가전 대기업인 하이얼(海尔)은 1996년 설립된 중국 도시상업은행의 하나인 칭다오은행(青岛银行)의 지분을 24.59% 보유하여(2015년 기준) 칭다오 은행의 1대 주주임³⁴⁾

2. 중국의 금융규제의 완화와 알리바바 금융사업 발전

(1) 온라인 지급결제 영역의 규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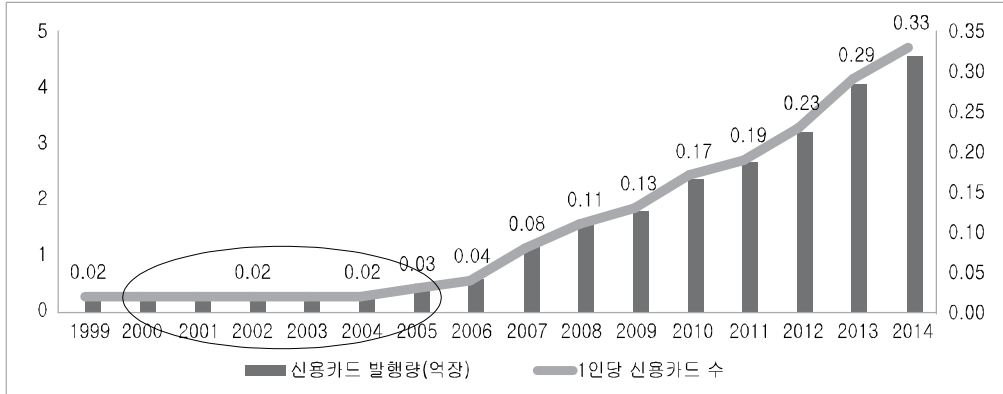
- ▶ 2000년대 초반 중국 금융산업은 낙후되어 있었고, 은행의 독점영역이었던 지급결제 부문은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
 - 당시 중국은 광대한 국토에 비해 금융산업 인프라 수준은 낮았음
 - 2001년 12월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국의 금융시장을 개방³⁵⁾ 하기 전까지, 중국의 금융산업은 경쟁이 없는 사실상 국내독점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사들에 비해 매우 낙후되었음
 - 일반적으로 지급결제는 은행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중국 은행들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자동인출기(ATM), 결제단말기(POS), 인터넷 뱅킹 등 지급결제 관련 금융산업 기반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음
 - 2000년대 중반까지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수는 0.02장에 불과하였고, 2014년 기준 중국의 현금자동인출기는 인구 10만 명당 37개, 은행 지점수는 7.7개, 1인당 은행카드(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보유수는 3.5장(신용카드는 0.33장)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지급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³⁶⁾

34) 股吧网页版(2015), “青岛海尔持有青岛银行24.59%股权,是青岛银行第一大股东” 2015-02-05
<http://guba.eastmoney.com/news,600690,146850979.html>

35) 중국의 은행산업은 최장 5년의 유예기간을 허용 받았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들이 중국 국내에 지역이나 업무영역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2006년 12월 이후부터였음

36) 한국은행(2016),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2016-5호

〈그림 4〉 중국의 신용카드 산업 발전 추이



자료: 中國信用卡發展趨勢報告, 2014³⁷⁾

▶ 중국정부는 전자상거래 관련 비(非)금융회사가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³⁸⁾

- 1999년 설립된 알리바바³⁹⁾가 전자상거래 관련 온라인 지급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支付宝)를 설립할 2003년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성장 초기 단계로 제도적인 불안정성이 존재
 - 당시 많은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은행만 발급할 수 있었던 신용카드의 보급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음
 - 2000년대 초반 전자상거래 관련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국제결제 선두주자였던 페이팔(Paypal)에 의존하였으나, 당시 페이팔의 양자간 직접결제 방식⁴⁰⁾이 중국에서 결제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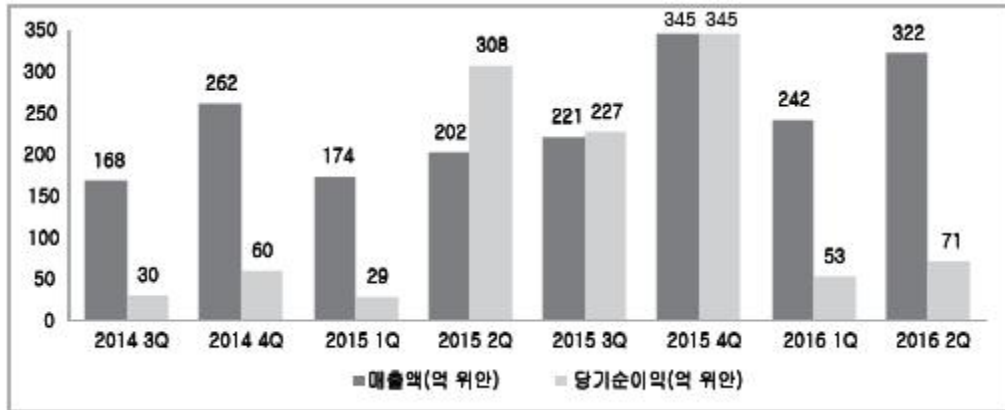
37) 『2014年信用卡行业发展趋势报告』, 바이두(Baidu)文庫

38) 중국 인민(人民)대학교 금융학과 교수이며 부총장, 중국 금융과 증권연구소 소장,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위원인 우샤오치우(吴晓求)는 중국내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임. 그는 자신의 논문 〈중국금융의 혁신과 온라인 금융(中国金融的深度变革与互联网金融: 财贸经济; 2014年 01期)〉에서 중국의 전자상거래관련 정보통신 회사가 은행 금융결제시스템을 보완하였다고 평가함

39) 알리바바(阿里巴巴; 1688.com)는 1999년 마윈(馬雲) 등이 중국 제조업체와 해외의 구매자들을 연결하는 기업 대 기업(B2B) 사이트인 알리바바(Alibaba.com)를 개설하면서 설립되었다. 이후 2000년까지 일본의 소프트뱅크,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등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2002년에는 알리바바 B2B 사이트에서 처음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는 개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淘宝: www.taobao.com)를 개설하였고, 제3자 지급결제시스템인 지푸바오(支付宝)를 도입하였다. 이후 알리바바의 성장은 지속되어서 2005년에는 미국 야후와 합작파트너로 야후차이나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서봉교 외(2015), p.175

40) 당시 페이팔은 인터넷 상거래 때에 구매자의 결제 대금이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판매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결제사고를 막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그림 5〉 알리바바 그룹 전체 매출과 당기순이익



자료: 바이두 중국상장기업 DB 검색

- 이런 상황에서 알리바바는 중국 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에스스로 전자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를 도입하여 전자상거래의 금융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음
-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페이팔과 유사하였지만, 국토가 넓고 전자상거래 관련 신뢰도가 높지 못한 중국 실정에 적합한 에스스로(Escrow; 제3자 지급결제 보증) 플랫폼 방식을 채택하여 중국 전자상거래 결제시장을 석권함
- 알리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알리페이 거래계좌에 대금을 송금하면 판매자가 알리페이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상품을 발송하고, 구매자는 상품을 받은 이후 구매확정을 통지하면 알리페이가 최종적으로 판매자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당시 중국 전자상거래 상황과 잘 맞았음
- 알리바바는 2008년 2월 핸드폰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업무를 중국 내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금융거래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여 고객의 신뢰도를 높여 온라인 지급결제 분야에서 중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함

▶ 중국 금융당국이 비(非)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법률을 정식으로 통과시킨 것은 2010년으로, 사실상 그 이전 수년 동안은 명확한 관련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발전하였음

-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2010년 6월 21일 <비(非)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 관리방법(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⁴¹⁾이라는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세칙⁴²⁾도 마련하였음

41) 인민은행법령(中国人民银行令), 2010년, 2호

42)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实施细则》, 2010년

- 이 법의 2조에서는 비금융회사가 온라인 결제(인터넷 결제, 핸드폰 결제, 고정전화 결제, 디지털 텔레비전 결제), 선불카드, 은행카드(POS 단말기 포함), 및 기타 지급결제 수단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이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지급결제 서비스에 종사하는 비금융회사에게 지급결제 업무허가증(支付业务许可证)을 발급하고, 이 허가증을 취득한 회사만이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법의 2장 8조와 9조에서는 온라인 지급결제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격, 자본금, 출자인, 경영진, 관련 설비 등을 규정하였는데, 중국 국내 등록법인으로 자본금은 1억 위안으로 규정하였고, 외국투자자의 출자 자격과 비율은 중국 국무원의 기준을 받도록 규정하였음
 -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2011년 5월 중국 최초로 제3자 지급결제의 업무허가증을 정식으로 취득하였고, 2013년 10월까지 250개 이상의 비금융회사가 지급결제 업무허가증을 취득함⁴³⁾
- ▶ 즉, 중국 금융당국이 이전의 금융규제(은행이 지급결제를 담당한다는 기존의 상업은행법, 1995년)를 새롭게 부상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적용하여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았던 것이 중국 핀테크 지급결제 급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임
- 1995년 제정된 중국의 상업은행법(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3조에 3항에는 ‘중국 국내외 화폐 지급결제를 상업은행이 담당한다’⁴⁴⁾고 규정하고 있었음
 - 알리바바의 알리페이(支付宝)는 사실상 중국 금융당국의 무규제(無規制)의 회색지대에서 사실상의 규제완화, 혹은 “실험적인 규제완화” 정책의 혜택을 받았던 것이 중요한 성장 원동력이었음
 - 2003년부터 온라인 지급결제 업무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알리페이에게 기존 은행에게만 허용되었던 지급결제 규정을 적용하여 온라인 지급결제 업무를 금지하였다면 알리페이의 빠른 발전은 불가능하였음
 - 초창기 알리페이는 실험적으로 남부 지역에 국한되어 온라인 지급결제 영입이 허용되었다가, 성과가 나타나면서 바로 전국적으로 온라인 지급결제 영역이 확대되었음
 - 나아가 중국 금융당국은 2008년 10월 25일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즈푸바오)를 이용하여 상하수도 요금, 전기세, 통신비 등의 공공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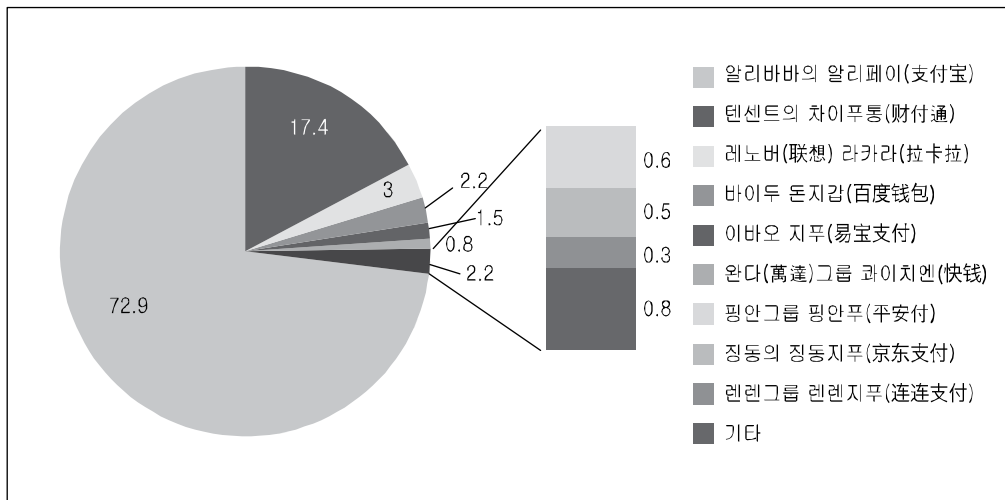
43) 이 허가증을 취득한 지급결제 회사들의 영업 범위는, 화폐교환, 온라인 지급결제, 핸드폰 지급결제, 고정전화 지급결제, 디지털텔레비전 지급결제, 선불카드 발행 등이다. 姚文平(2014), 『互联网金融』, 中信出版社, 2014. p.185

44) 商业银行可以经营下列部分或者全部业务 (三) 办理国内外结算

는 등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이 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하기도 하였음

- 알리바바는 수년간의 지급결제 서비스 경험과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점차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핀테크 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축적할 수 있었음
- 2003년부터 온라인 지급결제 업무를 하고 있었던 알리페이는 결국 중국 최대의 온라인 지급 결제 플랫폼으로 성장하였고, 경쟁 상대였던 외국계 페이팔은 알리페이에 밀려 중국 온라인 지급결제 시장에서 철수하였음
-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즈푸바오)는 모바일 지급결제 분야의 급성장에 힘입어 2015년 9 조 3,100억 위안(전년 대비 57% 성장)에 달하는 중국 제3자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72.9%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함⁴⁵⁾
- 2위인 텐센트의 차이푸통(财付通: 微信支付+手机QQ)의 시장 점유율은 17.4%, 3위인 중국 대형 가전업체 레노버(Lenovo; 联想) 그룹의 금융계열사인 라카라(拉卡拉)의 시장 점유율은 3.0%에 불과하여 1위인 알리페이의 승자 독식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림 6〉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점유율 현황(2015년 말 기준)



자료: 財經网(2016)

45) 財經网(2016), “2015年第三方移动支付市场规模9.31万亿”, 2016-01-27
<http://mt.sohu.com/20160127/n436069014.shtml>

(2) 온라인 대출 진입장벽 완화와 이자율 규제완화

▶ 중국 금융산업에서 대출은 2000년대 중반까지 사실상 은행의 독점영역이었는데, 중국 은행들은 안정적인 국유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주로 하고, 소매금융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음

- 반면 WTO 가입 유예기간이 끝난 2006년부터 외국계 은행들이 중국내 법인을 통해 일반인 대상으로 소매금융 사업을 적극적 확대하면서 중국 금융당국의 소매금융 대출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계기가 됨
- 중국에서는 보험사의 약관대출,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이 2000년대 후반까지도 허용되지 않았고,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으로 분류되는 신탁회사를 통한 우회대출 등도 많은 규제를 받고 있음
- 반면 중국정부는 수출과 투자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내수소비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소매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농민과 농업에 대한 소액대출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

▶ 2008년 이후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사인 소액대출회사(小額貸款公司) 설립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은행 독점영역인 대출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

- 2008년 중국 금융당국인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비(非)금융회사나 개인이 광범위한 예금이 아니라 소수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소액대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소액대출회사 시범 운영에 대한 지도의견(关于小额贷款公司试点的指导意见)> 법안⁴⁶⁾을 통과
- 비(非)금융회사가 소액대출 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자금을 모집하여 소액대출 위주로 금융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
- 이 법안의 2조에서는 소액대출회사가 50인 이하의 주주의 출자로, 최저 자본금은 500만 위안(주식회사로 등록한 경우는 1,000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안의 3조에서는 소액대출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주주의 출자와 증자를 바탕으로 하고, 이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설립자본금을 마련할 경우 대출금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46) <소액대출회사 시범운영에 대한 지도의견(關與小額貸款公司試點的指導意見)> 2008年, 银监会, 23号

〈표 10〉 소액대출회사(小額貸款公司)의 주요 특징

	주요 특징
영업 내용	- 광범위한 일반예금은 수신하지 않고, 자기자본과 소수의 투자자에게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운영함 - 대출은 소재(所在) 지역 내로 한정하여, 단기 소액(少額), 분산(分散) 대출 위주로 운영
감독 기관	-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여신(與信) 전문금융회사이지만, 공상(工商)기업으로 분류되어 은행감독관리위원회(銀監委)의 감독을 받지 않음
이자율 규제	- 대출 이자율은 기준 법정 이자율의 4배를 초과해서는 안됨
영업 목표	- 농민과 소형 및 영세(小微型) 기업의 자금부족 완화를 목표로 함

자료: 최은영(2013), p.19⁴⁷⁾

▶ 알리바바의 핀테크 금융사업 발전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비(非)금융회사의 소액대출이 법률로 허용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알리바바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출관련 금융사업의 경험을 축적하였다는 점

- 2007년 5월 알리바바는 건설(建設)은행, 공상(工商)은행과 연계하여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회원사의 대출을 증개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당시 알리바바는 자신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축적한 회원사 기업들의 거래 신용정보 데이터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알리바바는 간접적인 금융사업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음
- 2009년에는 기존 B2B(기업 대 기업)업무 플랫폼을 알리파이낸스(阿里金融) 플랫폼으로 독립하고 이름을 개명하면서 금융사업 진출을 준비
- 당시 알리바바와 C2C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淘寶)⁴⁸⁾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과 개인의 거래 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는 이후 알리바바 금융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었음
- 만약 당시 알리바바의 이러한 대출 증개 금융서비스나 회원사 정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모델을 문제 삼아서 금융당국이 규제하였다면 알리바바의 핀테크 금융사업이 지금과 같이 빠르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임
- 당시 금융당국은 알리바바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규제의 회색지대로 남겨 두었다고 함

47) 최은영(2013), ‘중국 민간금융의 발전요인 분석과 최근 제도화 추세’, 『한국동북아논총』, 제55호 : 5-29

48) 타오바오(淘寶 : www.taobao.com)는 2003년, 알리바바가 개인 전자상거래(C2C) 사이트 및 플랫폼으로 독립한 것임

▶ 알리바바는 2010년 자(子)회사로 독립적인 소액대출회사(小额贷款公司)를 설립하고, 은행과 결별하여 독자적인 대출영업을 시작하면서 금융사업 부문이 급성장하기 시작

- 2010년 6월 저장성(浙江省)에 알리바바 소액대출회사를 설립하였고, 2011년 6월에는 충칭시(重庆市)에서도 소액대출회사를 설립
- 알리바바의 알리파이낸스는 일반은행에서 중시하지 않는 소형기업을 대상으로 저(低)금리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면서 급성장
 - 이때 알리바바 전자상거래와 2007년 이후 대출중개를 통해 축적한 기업과 개인의 거래 및 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와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저(低)금리 대출이 가능
 - 또한 알리바바의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리과정, 자금수취가 매우 빠르고 거래수수료가 획기적으로 절감됨

▶ 알리바바가 저(低)금리 소액대출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금융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이자율에 대한 규제 완화”(대출 이자율 하한에 대한 규제완화)가 알리바바 대출 금융사업의 시장기회를 제공하였음

- 중국 정부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점진적으로 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에 대한 하한을 2012년 6월 기준 금리의 0.8배로 완화하여 금융사들이 경쟁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 정부는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금리 차이를 3% 포인트 이상 유지시키면서 법으로 금융사들이 대출과 예금 이자율을 법정 이자율에 맞추도록 하여 경쟁을 제한하였음
- 중국 정부는 2003년 금리 자유화 개혁을 발표하고 예대금리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실상 자유화 정책이 미루어지고 있다가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자율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금융사들 간의 차별화된 경쟁을 유도하여 낮은 이자율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알리바바에게 금융 사업기회를 제공하였음

〈표 11〉 중국의 금리 자유화 내용과 시기

구분	금리 자유화 내용
예금 금리 규제 완화	-기준금리 상한의 1.1배로 확대(2012년 6월) -기준금리 상한의 1.2배로 확대(2014년 11월) -기준금리 상한의 1.3배로 확대(2015년 3월)
대출 금리 규제 완화	-기준금리 하한의 0.9배로 확대(2004년 1월) -기준금리 상한 폐지(2004년 10월) -기준금리 하한의 0.8배로 확대(2012년 6월) -기준금리 하한의 0.7배로 확대(2012년 7월) -기준금리 하한 폐지(2015년 3월)

자료: 한국은행(2015)⁴⁹⁾

(3) 온라인 펀드(실질적 예금) 판매 영역의 규제완화

▶ 중국정부는 2013년 6월 <증권투자기금법(证券投资基金法; 펀드법)>을 수정하여 증권사나 신탁회사가 아닌 비(非)금융회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알리바바가 자체 플랫폼으로 자회사의 펀드(실질적 예금) 판매가 가능해졌음

- 2012년 12월 28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증권투자기금법(证券投资基金法)> 수정 법안이 통과되었고, 2013년 6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하였음
- 2013년의 <증권투자기금법>이 기존 2003년의 법과의 차이 중에서 자산운용사의 주요 주주에 대한 규제가 증권사, 투자자문사, 신탁회사 등 자본금 3억 위안 이상의 금융회사로 제한되어 있던 규정(2장 3조)⁵⁰⁾을 수정하여 자본금 1억 위안 이상의 금융업이나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기타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파트너쉽회사(合伙企业)로 확대(2장 13조)하였음
- 그 외에 2013년의 수정 <증권투자기금법>의 주요 내용은 사모펀드(PEF) 관련 규정의 명확화, 펀드 투자 범위에 대한 규제완화(파생상품 투자규정 완화), 파트너쉽(合伙企业) 자산운용사 설립에 대한 규정 추가, 자산운용사의 지배구조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⁵¹⁾

49) 한국은행 국제경제부(2016), “중국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5.3.10

50) 펀드운용사의 주주 업종은 증권사, 증권투자자문사, 신탁자산관리회사 및 기타 금융자산 관리회사이고, 경영실적과 영업실적이 양호하여, 최근 3년간 불법적인 행위가 없고 자본금이 3억 위안 이상이어야 함(主要股东具有从事证券经营、证券投资咨询、信托资产管理或者其他金融资产管理的较好的经营业绩和良好的社会信誉,最近三年没有违法记录,注册资本不低于三亿元人民币)

51) “《证券投资基金法》解读”

<http://www.niwodai.com/view-simu/article-bbbc7152700.html>

〈표 12〉 중국 〈증권투자자금법(펀드법)〉의 주주관련 규정 수정 비교

2003년 〈증권투자자금법〉	2013년 〈증권투자자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사의 주요 주주는 증권사,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 및 기타 금융자산 운용회사 - 자본금 3억 위안 이상 - 경영실적과 영업실적이 양호하고, 최근 3년간 불법적인 행위가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이나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기타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파트너십 회사 - 자본금 1억 위안 이상 - 경영실적과 영업실적이 양호하고, 최근 3년간 불법적인 행위가 없어야 함

▶ 알리바바는 비(非)금융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2013년 10월 텐홍자산운용사(天弘基金管理有限公司)의 지분 51%를 소유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업의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음

- 이는 알리바바가 전략적으로 알리페이(즈푸바오) 온라인 제3자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한 혁신적인 온라인 펀드상품 판매를 위한 전략적인 제휴였음
- 2013년 6월 12일부터 알리바바는 텐홍자산운용사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온라인 펀드상품 위어바오(余额宝)를 중국 최초로 도입하였고, 위어바오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텐홍자산운용사는 지방의 중소 자산운용사에서 불과 1년 만에 중국 전체 자산운용사 중 2위로 급부상할 수 있었음⁵²⁾

▶ 알리바바가 출시한 온라인 펀드상품 위어바오(余额宝)는 사실상 알리바바의 지급결제시스템 알리페이를 수익률이 높은 예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큰 인기를 얻고 급성장할 수 있었음

- 기존 알리페이의 제3자 지급결제 시스템은 에스크로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결제가 완료되기까지 몇일 정도 결제 대금을 알리페이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데, 알리바바는 이 현금을 동일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위어바오 계좌로 이체하기만 하면 6~7% 대의 높은 투자수익을 “예금이자”처럼 돌려주는 획기적인 금융상품 위어바오를 2013년 6월 12일 출시하였음
- 위어바오는 자금의 90% 이상이 은행예금으로 운용되어 투자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머니마켓펀드(MMF)이면서도 수익률은 일반 은행예금(1~3%대)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6개월 만에 투자자가 1억 5,000명, 투자자금이 6,000억 위안 수준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음
- 알리페이 계좌에서 위어바오로의 계좌 이체는 오프라인 방문 등이 필요 없이 알리바바 모바일

52) 텐홍자산운용사는 2004년 텐진신탁회사가 대주주로 설립된 지방의 중소 자산운용사였으나, 위어바오를 운영하는 텐홍썬리바오 MMF로 인해 2014년 6월 중국 2위의 자산운용사로 급성장하였다(서봉교 외, “중국 신품금융상품, 위어바오의 성장과 중국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 『동북아경제연구』, 26권 3호, p.105

일 플랫폼 상에서 몇 개의 버튼 조작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자금을 위어바오 계좌로 이체

- 계좌 출금은 위어바오 계좌 해체 후 전자상거래 결제는 당일인출(T+0)이 가능하고, 타은행으로의 이체서비스는 다음 날(T+1) 이루어질 만큼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예금과 큰 차이가 없고,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됨

▶ 알리바바의 위어바오가 급성장하면서 은행의 개인 요구불예금이 위어바오로 대체되어 감소하자, 은행들은 위어바오가 펀드 판매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금융당국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함

-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이자율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위어바오 출시 이후 개인 은행예금 중에서 요구불 예금이 급격히 감소하여 40% 수준에서 2014년 4월 36.6%로 감소하였음⁵³⁾
- 은행 측의 주장은 중국의 펀드 판매가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온라인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를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임
-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펀드 구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흡사 예금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불완전판매’라고 비판하였음
- 예를 들면 2014년 2월 은행측 관계자들은 CCTV에서 위어바오를 “은행에 기생하는 흡혈귀”라고 비판하면서 위어바오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고,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악화시켜서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음
- 또 위어바오가 해커의 침투와 같은 기술적 리스크, 수익률 하락 가능성 리스크, 내부 관리 리스크 등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음

▶ 하지만 중국 금융당국은 논란이 심각하게 과열되기 전에 위어바오가 정당한 금융상품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한편으로는 위어바오의 추가적인 성장에는 제한을 두는 일종의 교통정리를 통해 중국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유도하였음

- 2014년 2월 2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위어바오가 금융시장의 확대, 이자율 시장화, 보편혜택금융(푸웨이진룽: 普惠金融; 일종의 서민금융과 유사한 개념) 이념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2014년 3월 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행장 주샤오첸(周小川)은 위어바오와 같

53) 서봉교 외(2014), p.113

은 신(新)금융상품 혁신을 적극 지지하고, 절대로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일단락 지음

- 동시에 급성장한 위어바오의 추가적인 펀드규모 확대에는 제한을 두고 비슷한 형태의 다른 온라인 업체들이나 기존 은행들이 유사한 형태의 온라인 펀드상품을 준비하고 판매하여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이후 중국내 온라인 업체들과 은행들은 센진바오(바이두), 링첸바오(쑤닝) 등 위어바오와 유사한 다양한 바오(寶)형태의 머니마켓펀드를 출시하면서 이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었음

▶ 이러한 핀테크 머니마켓펀드 시장의 확대로 개인 예금투자자들은 투자 리스크가 거의 없이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

(4) 비(非)금융사의 핀테크 온라인 은행업(예금기반 대출) 진출 규제 완화

▶ 2014년부터 중국정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전문회사 등 비(非)금융사들에게 무(無)점포 온라인 전문은행 설립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면서 핀테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중국정부의 온라인 은행업 허용은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특구지역 내 민영은행 설립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면서 시작되었음
- 2013년 9월 29일 은행감독위원회의 <통지(通知)> 규정⁵⁴⁾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은행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순수 민영은행 설립을 허용
- 나아가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2014년 1월 6일 은행업무보고(銀行工作報告)를 통해 2014년 안에 3~5개의 민영은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여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개선, 금융 경쟁력의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힘
- 2014년 7월 25일 은감위는 심사를 통해 텐센트, 알리바바, 텐진진성(天津金城) 3개 민영은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여 예비 인가를 내림
- 2015년 5월 27일 은감위는 텐센트, 알리바바, 텐진진성, 상하이화웨이(上海华瑞銀行), 윈저우민상은행(温州民商銀行) 등 5개 민영은행에 대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였음

▶ 이에 따라 알리바바(阿里巴巴)는 2015년 6월 <마이뱅크(MYbank), 중국명 아리온라인은행(阿里网商银行)>을 설립하였음

-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회사이고, 산하의 알리페이(Alipay: 支付宝)는

54) 银监会发布《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银行业监管有关问题的通知》，2013年 40号 문건

중국 전자상거래 결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경쟁 우위와 고객기반이 있음

- 알리바바의 킬러 콘텐츠는 예금+투자금융상품 성격의 위어바오(余额宝)와 산하의 소액대출회사를 연계한 충분한 예금 기반을 확보한 인터넷 신용대출 상품(芝麻信用) 등이 있었음
- 알리바바 마이뱅크 출범 이후 개인(중국어로 개미를 마이:蚂蚁) 소액대출을 강화하는 등 기존 은행들과는 차별화된 전략 추진
- 알리바바의 마윈(馬雲) 회장이 과거 3만 위안의 소액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액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유명한 일화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15년 12월까지 마이뱅크 총자산은 302억 위안, 총 부채는 263억 위안
- 대출 업무가 전체 영업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기업 대출은 전체 대출의 19%, 개인 대출이 전체 대출의 81%를 차지함
- 2015년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부실 대출 비율은 0.2%에 불과함

〈표 13〉 알리바바 마이뱅크 대출 현황(2015년 말 기준)

	대출 금액(억 위안)	전체에서의 비중
기업 대출	13.8	18.6%
개인 대출	60.3	81.4%
전체	74.1	100%

자료: 마이뱅크 년도보고

- 알리바바 마이뱅크는 2015년 4월 21일 온라인 결제시스템 알리페이(Alipay: 支付宝)와 연계된 소액대출 플랫폼 “마이지에베이(蚂蚁借呗)”를 출시하였고, 1년 만에 누적 대출 금액은 492억 위안(약 8조 2,000억 원), 신용공여자(授信) 수는 3,000만 명에 달함
- 마이지에베이는 온라인 대출이라는 특성 때문에 90% 이상의 고객이 80년대 생이나 90년대 생(生)의 젊은 고객층임
- 지역별로는 광둥(广东)성이 16%로 가장 많고, 저장(浙江) 14%, 장수(江苏) 9%, 푸젠(福建) 7%, 상하이(上海) 6% 순임
- 알리바바는 2015년 4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텐마오(天猫), 타오바오(淘宝)의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출 플랫폼 “마이화베이(蚂蚁花呗)”도 출시하였고, 반년 만에 150만 명의 고객이 화베이 플랫폼을 개통하였음
- 2015년 11월 11일 중국 최대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할인행사 광군절(光棍节) 하루 만에 화베이 대출플랫폼은 6,048만 건이 거래되었고, 알리페이(즈푸바오) 전체 거래 금액의 8.5%를 차지하였음⁵⁵⁾

55) 每日经济新闻(2016), “双11一天发放6048万笔消费信贷, 蚂蚁花呗怎么做到的? 秘笈是资产证券化”,

- 대출 금액은 500위안에서 5만 위안 사이임
- 대출 상품으로는 화장품, 약제사리, 스킨메이크업, 핸드백, 여성 구두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함
- 마이지에베이가 대출금의 현금 인출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마이화베이는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고 온라인 상품 구매 시(時) 결제를 위한 대출만 가능

〈표 14〉 중국 온라인 소액대출 상품과 대출 이자율

회사 명	상품 명	이자율 및 대출 금액
텐센트 (腾讯)	웨이리다이 (微粒贷)	- 웨이중 은행, QQ钱包 고객 - 500~20만 위안, 20개월 미만 / 최고 년 18%
알리바바 (芝麻信用)	지에베이 (借呗)	- 알리바바 芝麻 점수 600점 이상 고객 - 1000~5만 위안, 12개월 미만 / 최고 년16.4%
징둥(京东) (빠른 배송으로 유명)	징둥바이티아오 (京东白条)	- 인터넷 상거래 구매 고객 - 1.5만 元, 30일 결제 이월/ 신용도 따라 무이자 - 24개월 미만 / 최고 년 18%

자료 : 각사 온라인 사이트에서 필자 검색

▶ 알리바바 핀테크 온라인 은행인 마이뱅크(阿里网商银行; MYbank)는 온라인 전문 은행으로 주요 주주는 알리바바, 푸싱, 완상 등 비(非)금융회사가 모(母)회사로 구성되어 있음

- 마이뱅크는 2015년 6월 25일, 중국내 2번째로 설립된 온라인 전문은행으로 자본금 40억 위안(약 7,160억 원)이며 원래 2014년 9월 온라인 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신청했던 알리바바의 저장온라인은행(浙江网商银行)이 마이뱅크로 개명함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ybank.cn/>), 모바일 앱으로 운영되며 지점은 없고, 본점은 저장성(浙江省) 항저우시(杭州市)에 있음
- 마이뱅크의 주주 구성은 알리바바 그룹의 마이진푸(蚂蚁小微金服: 개미소액대출금융서비스회사)가 30%의 지분, 제약업에 종사하는 상하이 푸싱그룹(上海复星)이 25%의 지분,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완상 삼농그룹(万向三农)이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2015年 11月 13日
http://finance.ifeng.com/a/20151113/14067249_0.shtml

〈표 15〉 알리바바 핀테크 온라인 은행 마이뱅크의 주주 구성

주주 명	출자금액 (억 위안)	지분율	주요 특징
알리바바 저장 마이진푸 (浙江蚂蚁小微金融服务集团)	12	30%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페이, 위어바오, 마 이소액대출회사 등을 합병
상하이 푸싱 공업기술 (上海复星工业技术发展)	10	25%	-1992년 설립, 제약업에서 출발하여 부동산 개발, 철강, 광산업, 유통업, 지분투자업 등으로 다각화
완상 삼농 그룹 (万向三农集团)	7.2	18%	-2002년 설립,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산하에 2개의 상장사 2개의 국가기금 연구소 등을 보유
닝보시 진룬 자산운용사 (宁波市金润资产经营)	6.4	16%	
항저우 허보스 전자상거래 (杭州禾博士电子商务)	3.2	8%	-2010년 설립된 합자회사, 미용건강 브랜드 Dr.Herbs가 대표 상품
진즈 햄 회사 (金字火腿)	1.2	3%	-1992년 설립된 햄 제조회사, 2010년 상장됨

자료: 마이뱅크 2015년 년도보고

3. 핀테크 산업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 특징

- ▶ 중국 정부의 핀테크 산업육성 정책의 특징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육성보다는 점진적인 규제완화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임
 - 점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이들에게 사업 기회를 조성하고, 신규 진입자와 기존 금융사들과의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고, 사후적으로 법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하였음
 - 금융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편혜택금융(普惠金融; 서민금융)이라는 정책 명분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기존 금융사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수익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음
- ▶ 중국 정부는 새로운 핀테크 산업이 등장할 때 규제 적용의 '열린 접근법'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규제방식이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시대의 새로운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으로 효과를 발휘하였음
 - 일부 시범 지역이나 기업에 대해 기존의 엄격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이러한 실험을 통해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법률을 보완

- 이러한 실험적이고 예외적인 무규제(無規制)의 ‘열린 접근법’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금융당국도 이러한 실험을 통해 사후적으로 법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장려함
 - 지방정부나 특구(特區)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실험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의 책임과 성공에 따른 보상을 명확히 하여 혁신을 장려
 -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대한 실험적인 규제완화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면 이를 사후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의 핀테크 산업은 관련 플랫폼을 통해 일종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열린 접근법’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서비스 경험을 축적한 선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 중국 내수시장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여 서비스 경험과 고객 정보를 축적한 선발 업체가 추가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핀테크 기업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

▶ 신규 산업 등장 시 중국정부가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 기득권을 가진 기존 금융사들의 반발이나 개인정보, 보안 등 많은 문제점들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

- 기존 금융사, 특히 은행들은 핀테크 신규 사업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수익 기반을 침해하는데 반발하기도 하였지만, 중국정부가 보편혜택금융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제시하여 설득하였기 때문에 핀테크 신규 사업자와 업무 영역을 조정하거나 기존 금융사들도 자체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음
 - 동시에 중국 은행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방 중소형 은행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개인 금융정보 보호, 온라인 금융의 보안 문제, 대출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금융실명제 등 금융환경을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의 금융보안 문제는 핀테크 사업자들에게 사후적인 보안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보안관련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여 온라인 금융 보안관련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음
 - 2015년 하반기 이후 P2P 대출 부실 문제가 심화되면서 부실 P2P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지만, 전반적인 P2P 산업 발전 정책 방향성은 유지

〈표 16〉 알리바바의 금융사업 포트폴리오 발전 경과

시기	사업 분야	자회사 명	주요 내용
2004	지급결제	알리페이 (Alipay: 支付宝)	알리바바 그룹내 지급결제 플랫폼, 오프라인 결제 결합(온라인 지급결제)
2007	소액 대출	알리 파이낸스 (阿里金融)	알리바바, T-mall 등에 입점한 업체 대상으로 소액 대출(자기자본 대출)
2013	자산운용 상품	위어바오 (余额宝)	알리페이 계정내 잔여금액 중 위어바오 이체금액을 MMF에 투자(예금 기반)
2013	인터넷 보험	중안온라인보험 (众安在线保险)	알리바바, 텐센트, 핑안(平安)보험사가 투자(온라인 보험상품)
2014	모바일 은행	저장온라인은행 (浙江网商银行)	2015년 알리바바 온라인 마이뱅크로 (阿里网商银行:MYbank) 출범(예금+대출)

자료: 관련 자료 바탕으로 필자 정리

IV.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핀테크 산업의 현황

▶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보통신(ICT)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이 있었지만, 법률적인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최근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한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논의와 시도가 과거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음
- 2001년 SK 텔레콤, 롯데, 코오롱, 안철수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브이뱅크)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금융실명제 법률에서 지점의 직접방문, 대면 거래 등의 규정이 인터넷전문은행과 맞지 않고, 관련 법률 개정이 무산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무산
- 2008년에도 대기업과 벤처회사 등이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논의 되었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에 대한 제한(銀産분리) 규제가 국회 정무위에서 은행산업 부실 우려와 과당경쟁 우려라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 규제 완화 논의가 약화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무산됨

▶ 2014년 말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외국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2014년 3월 ‘천송이 코트’ 사례를 통해 국내 쇼핑몰 이용, 특히 온라인 결제가 외국에 비해 어렵고 낙후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기 시작
- 당시 2014년 5월 전자상거래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2014년 7월 부처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등이 발표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음
- 2015년 1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융인 신년모임에서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 보다 가볍고 빠른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업권 간 칸막이를 완화하여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
- 2015년 5월 6일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핀테크 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 핀

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세부과제 제시

〈표 17〉 한국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구분	주요 개선 내용
1. 핀테크 산업의 창업, 성장 촉진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에 처업의 최소 자본금을 인하(예: 1억 원)하여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으로 명확히 함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활성화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가 공동책임을 책임을 지도록 하여 금융회사가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적극 수용
2.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 비대면 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의 방식을 적용하여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
2)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 클라우드 펀딩 법안이 국회 통과 시 정책펀드, 민간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혁신적인 투자 성공사례를 조기 출현하도록 유도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및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의 출현 활성화를 지원
3.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핀테크 인프라 구축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핀테크 지원 협의체 운영 내실화
2)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 체계 구축	-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유도, 금융보안원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금융위원회 블로그(2015.5.6.)

▶ 한국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은 일부 규제완화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규제부분에서는 여전히 규제완화가 되지 못하고 부수적인 서비스나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 정부 주도 시범 사업추진, 재정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음

- 2015년 11월 ‘카카오 은행(카카오 주도)’과 ‘케이뱅크(KT가 주도)’ 2곳에 대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를 허용하였으나, 관련 법률 통과가 불확실하여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

• 소규모 사업자 핀테크 산업 등록자본금 요건은 3억 원(기존 5억 원)으로 완화

- 전자금융업 등록 심사 항목을 기존 72개에서 32개로 축소 등의 성과는 있음
-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2016년 1월), 온라인 보험 비교가 가능한 ‘보험다모아’ 사이트 개설(2015년 11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협회나 정부관련 산하 기관의 주도로 시범적으로 진행 중으로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한계
- 은행 창구 방문없이 온라인 비대면 본인확인(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방식을 허용(2015년 12월)하고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를 200만 원으로 확대(기존 30만 원)
- ‘보험다모아’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주도가 되어 개설하였으나 보험업계의 반발 등에 직면하여 사업성이 낮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음
- 창조경제혁신 센터 내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2015년 3월), 미래부-중기청-금감원 등의 민관 합동 ‘핀테크 지원협의체’ 구성(2015년 4월), 우수 핀테크 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koscom)의 핀테크 테스트베드(Test-bed) 개소(2015년 12월) 등의 성과가 있음
-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은 2016년 9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인 ‘케이 파스-타(K PssS-TA)’를 시범 서비스

▶ 반면 기존 금융사들의 핀테크 회사에 대한 M&A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은행들이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기존 인터넷 बैं킹과의 차별화 어려움, 중복 투자 문제, 신규 가입자 확보 문제 등이 장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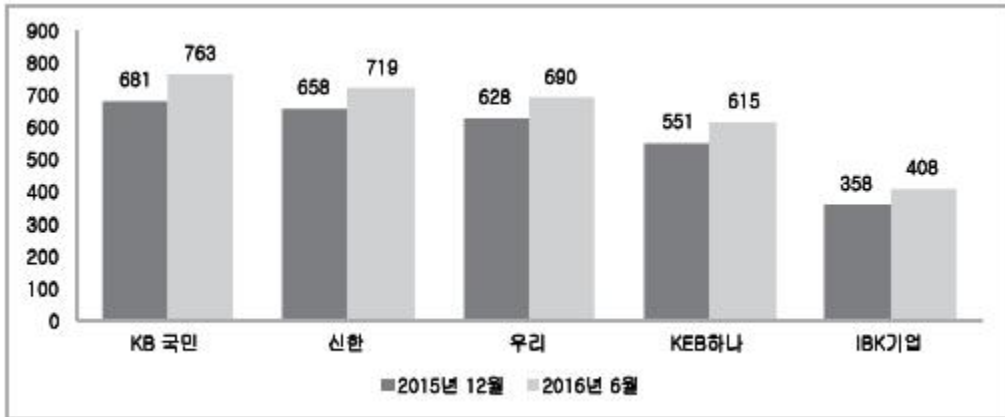
- 우리은행은 2015년 5월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를 시범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을 활용한 송금, 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고, 2016년 9월부터는 ‘위비클라우드’라는 모바일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출시
- 우리은행에 따르면 위비톡 가입자 수가 150만 명에 달한다(2016년 7월)⁵⁶⁾고 하지만 독보적인 1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이용자수는 4,800만 명(그중 국내 이용자 80%)으로 카카오톡이 독보적인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음
- IBK기업은행도 모바일뱅킹 서비스 ‘i-ONE’을 출시하였고, KB국민은행의 모바일뱅킹 이용자 수는 760만 명으로 은행권 1위를 차지(2016년 7월 누적 기준)⁵⁷⁾
- 하지만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은행들의 모바일 बैं킹을 핀테크 혁신이라고 하기는 부족한 점이 많음

56) 이투데이, “150만 명 쓰는 ‘위비톡’ 내달 오픈마켓 개설”, 이투데이, 2016-07-13

57) 전자신문, “2016년 모바일뱅킹 1위 KB국민은행...이용자수 두 자릿수 증가 ‘모바일 금융’시대”, 전자신문, 2016년-09-05

〈그림 7〉 한국 은행들의 모바일 뱅킹 이용자 추이

(단위: 만 명)



자료: 전자신문(2016)

- 일부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이 시스템 구축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높은 예금 이자율과 낮은 대출 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함

▶ 결정적으로 핀테크 금융업 발전에서 결정적인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비(非)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단기간 내에 어려울 전망

-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ICT) 회사가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음
- 하지만, 현행 한국의 <은행법> 16조2항 ‘비(非)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보유제한 규정’에 따라 전체 은행 의결권 주식의 4%(소유 지분은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는 소위 은산(銀産)분리 규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되고 있음
 - 2016년 3월 벤처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고, 지난 국회에서 신동우 의원, 김용태 의원 등의 입법 발의도 있었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됨
 - 20대 국회에서 다시 카카오와 KT에 한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33.3%까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이 논의되고 있으나 법안 통과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⁵⁸⁾
 - 현재 20대 국회에 2016년에 강석진 의원(296호), 김용태 의원(765호) 등이 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상황임

58) 전자신문, “KT·카카오, 인터넷은행 33.3% 지분 특별법 추진...여야 합의 가능성”, 2016.09.06

〈표 18〉 한국과 중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 비교

구분	중국	한국
핀테크 은행 사업 주체	· 비금융사도 핀테크 은행 설립 가능 (2014년 7월)	· 비금융사 은행 지분 참여 제한 (의결권 주식 4%, 비의결권 주 10% - 은행법 16조2항)
핀테크 자산운용업	· 비금융사의 핀테크 자산운용상품이 사실 상 비금융 핀테크 회사의 예금기반으로 활용되었음(2013년 6월) · 비 금융사의 자산운용사 설립 허용 (2013년 6월)	· 자산운용상품(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로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5월 일부개정, 제8조3항) · 금융회사(자산운용사)의 최대 주주의 자격 심사는 금융위원회의 자격 승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2조)
핀테크 자기자본 대출업	· 비금융회사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은 행의 대출을 중개(2007년 5월) · 비금융회사가 소액대출회사 설립 허용 (2008년, 여신 금융회사이지만 은행감 독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음)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조) ·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여신전문금융 업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3조)
핀테크 지급결제 서비스	· 비금융회사가 온라인 지급결제 영역에 진출(90년대 말) ·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 공식적으로 허용 (2010년,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 관리방법)	· 비은행 금융기관(대형 증권사의 외환 결 제 등)의 지급결제가 일부 허용되었으나 최종적인 지급결제는 중앙은행, 금융결 제원, 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에 연결되어 야 하고 이 시스템에 가입하는 가입비가 높게 책정

2. 한국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비(非)금융업종에서 확실한 고객기반과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한 비(非)금융회사가 주도하였음

- 비(非)금융회사가 기존 전자상거래나 SNS 등 킬러 콘텐츠에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부가함으로써 급성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
- 한국에서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고, 오히려 기존 금융사나 정부가 주도 하여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이 어려움
- 기존 금융사들은 원래의 금융서비스와 자기 경쟁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기존 인터넷 뱅킹이 모바일 뱅킹의 발전을

제약하는 제도적 함정(institutional traps)으로 작용

▶ 중국 핀테크 산업의 기반이 되는 모바일 결제분야나 송금 등의 분야에서는 대세추종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핀테크 접근성을 높여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였음

-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분야의 알리바바 알리페이(즈푸바오), 모바일 메신저와 송금 분야의 텐센트 웨이신(微信) 등으로 승자 독식과 대세 추종 현상이 나타나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음
- 이러한 대세추종 현상은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의 핀테크 접근성을 높여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였음
- 대세추종 현상은 핀테크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보안에 대한 투자나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
- 반면 한국에서는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중소형 핀테크 사업자들이 경쟁하면서 대세추종 현상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확실한 수익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핀테크 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한국의 중소형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나눠주기식 자금 지원은 핀테크 산업 발전과 혁신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정부는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로 신규 시장과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을 통해 금융혁신을 유도하였음

- 중국은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직접적인 육성정책 보다는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유도
- 반면 한국은 신규 핀테크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체되고 있음
-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구 설립, 정부 재정지원, 정부주도의 시범 핀테크 사업 등에 국한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이 기존 금융권의 수익기반을 침해하는 경우 보편혜택금융(서민금융)에 기여하는 금융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

- 핀테크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서민들이 보다 낮은 대출 이자율, 높은 예금 금리의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 반면 한국에서 기존 금융권의 모바일 뱅킹 등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는데, 이는 기존

인터넷 뱅킹과의 차별화 어려움, 중복투자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보편혜택금융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음

-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와 같은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 허용으로 편리한 모바일결제 이외에 보다 낮은 대출 이자율, 높은 예금 금리의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비금융사의 은행업 진출이 은행업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핀테크 신규 성장산업 출현 초기에 명확한 정책방향 설정과 시범적인 허용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높여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

- 핀테크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추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많은 서비스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고 나아가 관련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 경쟁력
- 초기에 서비스 기반 플랫폼에서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다른 글로벌 플랫폼 핀테크 회사들이 자국의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음
- 따라서 최근의 플랫폼 기반 신규 성장산업은 초기 사업시행 시기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나아가 최근 알리페이 등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핀테크 생태계는 점차 국경간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핀테크 금융 플랫폼을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핀테크 산업은 국경간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원-위안화 직거래가 허용된 상황에서, 중국의 발달된 핀테크 산업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으로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신규 성장산업에 대해 ‘실험적인 규제 완화’ 접근방법을 활용하면서, 정책 담당자가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사후적으로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유도

- 특구와 같은 일정 지역, 혹은 시범 기업들에게 ‘실험적인 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정책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 그리고 보상을 명확히 하여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사후적으로 보완하여 법제도적인 환경을 완성하고, 지나친 독점이나 부실 등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여 이를 보완함
- 반면 한국은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문제나 여론 비판 등의 이유로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률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핀테크 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한다는 여론의 비판이나 핀테크 부문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정책 담당자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 한국 금융부문이 과거 몇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혁신과 발전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중요성이 맞춰지면서,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 종합 인프라 순위는 18위, 전체 국가 경쟁력 순위는 26위인 반면 금융산업 경쟁력 순위는 87위로 낮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급격히 하락하였음⁵⁹⁾

59) 세계경제포럼(WEF)는 한국금융의 경쟁력이 2007년 27위에서 2014년 80위로 하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사 발표가 주관적인 설문조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해당 국가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쟁력 지표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보여주는 지표임에는 분명하다. 2015년 기준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순위는 87위인 반면 중국은 54위로 한국 금융산업 경쟁력 순위보다 높다. 서울경제(2015.08.11.) “파이낸셜 포커스, 한국금융 경쟁력 논란”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고원택(2015), “핀테크(Fintech)의 주요 서비스 및 주요국 동향”, 『주간기술동향』, ICT 기획시리즈, 2015.3.11
- 김정욱, 박봉권, 노영우, 임성현(2016), 『2016 다보스리포트』, 매일경제신문사
- 김희철(2009),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법적 논점 및 바람직한 도입 방안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No.28 : 399-428, p.401
- 문병순, 허지성(2014),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4.12.3. : 24-35, p.26
- 서봉교, 최낙섭(2015), “중국 신금융상품 위어바오의 성장과 중국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 『동북아경제연구』, 26권3호: 93-129
- 서봉교(2015), “중국의 핀테크 금융혁신과 온라인은행의 특징”, 『동북아경제연구』, 27권4호
- 이성복(2016),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6년 봄호 자본시장연구원
- 임재호(2016), “샤오미의 은행업 진출의 의미와 시사점”, 『월간 금융경제동향』
- 최은영(2013), ‘중국 민간금융의 발전요인 분석과 최근 제도화 추세’, 『한국동북아논총』, 제55호
- 한국은행(2016),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2016-5호
- 한국은행 국제경제부(2016), “중국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5.3.10.
-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15), 『부상하는 Fintech 동향과 IT 및 금융업에 대한 시사점』, FKII Issue report, 2015-02, p.9
- LG경제연구원(2014), “샤오미와 레이권의 도전과 전략”, 『LG瞭望中國』, p.30

[해외문헌]

- 邱峰(2013), “互联网金融对商业银行的冲击和挑战分析”, 《吉林金融研究》2013年 08期
- 庞雅心(2014), “互联网金融对传统商业银行发展的影响”, 《金融经济》2014年 第08期
- 逢亚男(2014) “互联网金融对传统商业银行的冲击及其应对策略”, 《经济视角(上旬刊)》, 2014年 第05期
- 张涛(2016), “我国互联网金融的发展与监管”, 《武汉金融》, 2016年 01期

吴晓求(2014) “中国金融的深度变革与互联网金”, 《财贸经济》2014年 01期

姚文平(2014), 『互联网金融』, 中信出版社, 2014.

清科研究中心(2015), 『2015年中国互联网金融行业投资研究报告』, 2015年 4月

[인터넷 신문 기사]

전자신문, “KT·카카오, 인터넷은행 33.3% 지분 특별법 추진...여야 합의 가능성”, 2016.09.06

이투데이, “150만명 쓰는 ‘위비톡’ 내달 오픈마켓 개설”, 이투데이, 2016-07-13

전자신문, “2016년 모바일뱅킹 1위 KB국민은행...이용자수 두 자릿수 증가 ‘모바일 금융’시대”,
전자신문, 2016년-09-05

서울경제(2015.08.11.) “파이낸셜 포커스, 한국금융 경쟁력 논란”

新浪科技(2015), “2015年中国互联网金融市场规模超10万亿” 2015年 05月 7日

<http://www.199it.com/archives/345685.html>

中国经济网(2016), “微众银行微粒贷一周年成绩单：发放贷款超400亿元”, 2016年 05月 17日

http://finance.ifeng.com/a/20160517/14389095_0.shtml

股吧网页版(2015), “青岛海尔持有青岛银行24.59%股权，是青岛银行第一大股东” 2015-02-05

<http://guba.eastmoney.com/news.600690,146850979.html>

財經網(2016), “2015年第三方移动支付市场规模9.31万亿”, 2016-01-27

<http://mt.sohu.com/20160127/n436069014.shtml>

每日经济新闻(2016), “双11一天放发6048万笔消费信贷，蚂蚁花呗怎么做到的？秘笈是资产
证券化”， 2015年 11月 13日 http://finance.ifeng.com/a/20151113/14067249_0.shtml